인쇄출판
대흥정판사
대표 이희준
Tel_ 063. 254. 0056~7
E-mail_ hi0056@hanmail.net
대표전화 (063)282-9601
인터넷 jeonbuktimes.co.kr

공감뉴스 전·북·을·세·계·로
전북타임스
The JeonBuk Times

서해크루즈
석도훼리 전북 대리점
실장 이진순
H 010.8375.8426
E long2030@hanmail.net
군산항 ⟷ 중국위해 석도항
주 3회 운행
F 063.212.9888

2026년 10월 30일(금) 제 3427호



전북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29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이원택 전북도지사와 전북 지역 연고 국회의원들이 손을 이어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정치권, 국가예산 국회 증액 '총력전'

道·지역 연고 국회의원 '원팀' 가동
정부안 10조 2349억 반영
피지컬AI·K-푸드 등 증액 건의
공공기관 이전·금융중심 지정 공조

전북도가 지역·연고 국회의원들과 손잡고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조에 나섰다.

도는 29일 국회에서 이원택 도지사 주재로 '전북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와 '전북 연고 국회의원-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었다.

이번 협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와 상임위원회별 전문성을 연결해 예산 반영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국가예산 주요 건의사업과 도정 현안을 공유하고 국회 심의 단계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지역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는 지역구별 핵심사업의 예산 반영 방안을 점검하고, 의원별 역할 분담을 통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연고 국회의원 협의회에서는 소관 상임위별 중점사업을 설명하며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건의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정부·정치권과의 협력으로 2027년 정부안에 10조 2,349억 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핵심사업은 정부 재정 여건과 사전절차 미비 등으로 충분히 담기지 못한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전북 피지컬 AI 밸리 조성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조성 ▲동물용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 등 첨단산업과 농생명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릴 사업을 제시했다. 아울러 새만금항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공급 등 기업 투자와 지역 개발을 뒷받침할 기반시설 확충도 요청했다.

또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예술특화 분관 건립 ▲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기록관 건립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등을 건의했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전북특별자치도 준보훈병원 지정, 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 건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의료·환경 사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예산과 함께 풀어야 할 현안으로는 ▲2차 공공기관 전북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연내 지정 ▲피지컬 AI·로봇 등 첨단산업 신규사업 지원 ▲현대차 투자 관련 입법 과제를 꼽았다. 도는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과 관련 법안 심사가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력을 구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사·부지사·실국장이 역할을 나눠 기획처와 국회 주요 인사를 상대로 예산 반영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27일부터 박지원 의원실에서 운영 중인 도·시군 합동 국회 상주반을 통해 심의 동향과 부처 의견을 정치권과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상임위부터 예결특위까지 단계별 대응을 강화해 증액 확보와 감액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원택 도지사는 "내년 국가예산은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고 도민의 삶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밑바탕"이라며 "단 한 건이라도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 시군, 정치권이 원팀이 되어 끝까지 뛰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道, 대체식품 글로벌 협력 확대
네덜란드와 기술교류 세미나

익산·전주서 양국 산·학·연 교류
세포농업·발효 등 기술 동향 공유
소재 공동개발·생산공정 개선 논의
국가식품클러스터 연계 협력 추진

전북도는 네덜란드 정부·기업·연구기관과 대체식품 분야 기술 및 산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국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28일부터 이틀 간 익산과 전주에서 열린 '전북도-네덜란드 대체식품 글로벌 협력 교류회'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주한네덜란드대사관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에는 양국 대체식품 분야 산·학·연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첫날인 28일 네덜란드 사절단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식물성 단백질 관련 기업인 라이스밸류를 방문해 식품기업 지원체계와 대체식품 생산시설을 살펴봤다.

29일에는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전북-네덜란드 글로벌 대체식품 세미나'가 열렸다. 양국 전문가들은 대체단백질 정책과 세포농업, 정밀발효, 소재 개발 및 산업화 전략 등을 공유했다.

네덜란드에서는 시모네 에이싱크 농수산식량안보자연부 농식품 프로그램 매니저와 델프트 공과대학교, 브릭바이오, 프로티넥스트 관계자들이 정책 및 기술 동향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국립식량과학원, 실리코바이오, 전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관계자들이 식물성 단백질과 배양육 기술, 산업화 과제 등을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기술과 사업 수요를 공유하고 소재 공동개발, 생산공정 개선, 시제품 제작 등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특히 네덜란드의 정밀발효·대량생산 기술과 국내 기업의 소재 개발·제품화 역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네덜란드 와게닝겐 푸드바이오 연구센터, 2025년 주한네덜란드대사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푸드테크 분야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교류회를 계기로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구·산업 기반을 활용해 국제 공동연구와 기업 사업화로 이어질 협력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김민석, 유시민 비판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겠다"

"당내외 어려움 속 절제 필요…
柳 발언 일일이 논평 필요 없어"
김남준 홍보위원장 역량 강조


김민석 대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유시민씨가 이재명 대통령과 자신이 대통령 및 당대표 임기를 채우지 못할 수도 있다고 비난한 것과 관련, "이럴 때 가장 좋은 것은 분열의 언어에 분열의 언어로 답하지 않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유씨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 당 내외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더 분열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가급적 아예 그런 문제를 키우지 않도록 절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직답을 피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를 할 때에는 유시민 작가께서 하시는 이런저런 말씀, 당을 위한 말씀을 듣고 꽤 화가 나기도 했다"며 "김대중 대통령 시절 이후 과거에도 그런 방식의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유 작가가 김대중 전 대통령 등에게 모진말을 한 것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사실은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논평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유씨가 자신이 〈민티07〉를 통해 진영 박살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에 대해선 "정당이 공식 방송을 출범시켜서 비교적 빠른 시기에 안착을 시켰다는 데 대해서는 크게 평가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며 "이런 부분까지도 정파적 시각, 계파적 시각 또는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김남준 의원이 홍보위원장이고 청와대 대변인을 거쳤던 분"이라며 "홍보를 잘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홍보위원장을 맡아서 당의 공식 방송을 잘 출범시킨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서울=김영묵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전북도, 수도권 박람회서 전주 올림픽 유치 홍보

킨텍스 페어서 홍보부스 운영
체험·이벤트로 관람객 참여 유도
전국 관람객 대상 유치 비전 소개
전국 행사 연계 홍보 지속 추진



<사진=전북도>

전북도가 젊은 층의 발길이 이어지는 수도권 대규모 박람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홍보에 나섰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1월 1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리는 '2026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유치 홍보활동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카페&베이커리페어 시즌2'는 커피·베이커리·디저트 등 관련 제품과 최신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는 대규모 박람회다. 올해에는 250여 개 업체가 400개 규모의 부스를 운영하며, 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홍보활동은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이 찾는 수도권 대규모 박람회 현장에서 전주 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비전과 가치를 알리고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행사장에 홍보부스를 마련하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운영한다. 또한 현장에서 전주 올림픽의 비전과 개최 효과를 설명하며 유치 필요성을 알릴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수도권 청년층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국민과 소통하고, 전주 올림픽 유치에 대한 관심과 응원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은 "수도권의 많은 청년과 국민들이 찾는 박람회에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의 의미를 직접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전국 주요 축제와 대규모 행사 현장을 찾아 국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응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조배숙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방지법' 발의

산출방법·기초자료 공개 의무화
국회 검증·재정통제 권한 강화


조배숙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정부의 불투명한 깜깜이 세수추계를 근절하고 국회의 실질적인 재정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조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법은 정부가 본예산안을 제출할 때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를 첨부하고, 매년 9월 세입 재추계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세입추계의 적정성 검증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세입추계 방법과 근거, 세입예산과 결산·재추계 결과 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등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세목별 세부 산출방법과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아 국회가 세입추계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최근 대규모 세수오차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세수 결손 보전을 구실로 기금 여유재원을 끌어다 쓰거나, 세수 여건을 빌미로 신설 목적성 기금에 자금을 변칙 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며 재정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가 세수를 자의적으로 추계할 경우, 국회의 사전 심의를 우회해 거대 기금을 정권의 '쌈짓돈'처럼 굴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본예산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안 제34조제2호의2)와 ▲9월 세입예산 재추계 분석보고서(안 제55조의2제2항)에 단순 설명을 넘어 '세목별 세입추계의 세부 산출방법 및 근거'와 '추계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회는 정부의 세입추계에 활용된 세부 산출방법과 기초자료를 토대로 추계의 타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미래대응기금 등 대규모 기금의 재원 조성 및 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감독 기능과 국가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헌법 제54조의 예산안 심의·확정권과 국가재정법상 예산총계주의는 국민 혈세가 정권의 입맛대로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정권이 미래대응기금과 같은 거대 기금을 쌈짓돈처럼 남용하고 깜깜이 세수추계로 방만한 재정을 이어간다면, 무너진 재정건전성 탓에 극심한 사회적 갈등에 직면한 '프랑스 파리 폭동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어 "세입예산은 국가 재정 규모와 지출 한도를 결정짓는 첫 단추인 만큼, 정부의 깜깜이 추계 관행을 완전히 걷어내고 세수 추계의 원데이터를 국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조 의원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027년도 예산안 종합 심사에서 예결위원으로서 정부의 세입예산 추계 근거와 미래대응기금 전입 시도의 타당성을 현미경 검증할 것"이라며, "깜깜이 세수 산출과 편법 기금 조성을 전제로 편성된 낭비성·선심성 사업 예산은 한 푼도 용납하지 않고 전액 삭감하여 무너진 국가재정의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묵기자

김의겸, '도이치 수사 무마' 검사 국외훈련 근거 공개 촉구

법무부, 비공개 지침 근거로 승인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지침 확인
학자금·체류비·급여 등 지원 계속
김 의원 "국회 감시 무력화 꼼수"


김의겸 의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 무마'로 기소된 최지은 검사의 국외훈련 근거 지침이 법무부 훈령·예규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밀실 매뉴얼'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는 국외훈련 근거로 정식 훈령·예규 목록에 없는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하면서도, 김의겸 의원실의 제출 요청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월 20일,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 중 최지은 검사는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 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와, 형사사법정보인 수사보고서를 불기소 처분 이후에도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올리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검사는 작년 12월 국외훈련을 시작해 올해 12월까지 외국에 체류할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이창수 전 지검장과 최지은 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은 법무부에 '최지은 검사의 국외연수 근거 규정'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 및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을 제시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은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이며, '검사국외훈련 운영규정'은 법무부가 관리하고 있는 훈령으로 둘 다 공개돼 있다.

그런데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은 법무부의 공개 훈령·예규 목록에는 물론, 비공개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원실에서 이 규정의 성격을 재차 묻자, 법무부는 '업무 매뉴얼'에 가까워 정식 예규나 훈령으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다고 하면서도 이를 제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출이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최 검사가 특검의 기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거 규정조차 비공개라는 점에 대해 비판이 있다. 검사는 국외훈련 중 학자금과 체류비를 지원받으며, 급여 역시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대해 국외연수에서 복귀하거나, 최소한 재판에 출석해 충실하게 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정식 훈령이나 예규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메뉴얼' 등의 이름으로 감시받지 않는 규정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검찰정책연구과정 시행지침'과 같이 정식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 규정이라면, 언제든 공개가 가능할 수준의 내용만 포함해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도이치 수사 무마로 기소된 검사가 국민 세금으로 국외훈련 계속하는데, 그 근거규정도 명확히 제출할 수 없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고 지적했다. 김의겸 의원은 또, "국회 감시를 무력화하는 '꼼수'가 얼마나 더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제출할 수 없는 정도의 기밀성이 요구되는 지침이라면 정식 훈령이나 예규로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영묵기자

전북도, 병·의원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집중 단속

11월 20일까지 병·의원 50곳 단속
중대 위반행위 직접 수사·송치

전북도는 의료폐기물의 부적정한 보관·처리로 인한 감염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11월 20일까지 도내 병·의원 50곳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관리실태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의료폐기물 발생 특성을 고려해 배출부터 보관·처리까지 전반적인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감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인체 조직, 주사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이 대표적이며, 일반폐기물과 구분해 전용용기에 보관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주요 단속 사항은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의무 이행 여부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 여부 ▲전용용기 사용 및 보관기간 준수 여부 ▲폐기물 인계·인수 내역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시스템) 입력 여부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업장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소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도는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 대상인 중대한 위반행위는 직접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처리를 위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성이 전북자치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감염 우려가 있는 만큼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하지 않고 전용용기에 보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각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기준을 준수해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보관·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JBT 광고 문의 063-282-9601 구독 문의 063-282-9603 전북타임스 http://www.jeonbiltimes.co.kr



전주시, 민선 9기 공약사업 확정

4개 핵심전략 89개 사업
총 1조 4011억 원 규모

전주시가 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다지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민선 9기 89개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

전주시는 '우리가 특별해지는 도시, 전주!'라는 시정 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시민 존중 도시 △AI 특별 도시 △시민 돌봄 책임 도시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등 4개 핵심전략 아래 89개 사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약사업의 총사업비는 1조 4011억 원 규모로, 재원별로는 △국비 3627억 원 △도비 1174억 원 △시비 6784억 원 △민간투자 등 기타 2426억 원이다.

이중 올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 민선 9기 시장 임기 내 소요되는 예산은 1조 846억 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 재원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50개 신규사업의 경우 2027년은 전문가 자문과 주민 간담회 등 사전절차와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공약의 완성도를 높인 뒤,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89개 공약사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선 시민 존중 도시 분야에 12개 사업을 담았다. 주요 사업은 △재정혁신특별위원회 구성 및 재정구조 공개 △시민주권 타운홀 미팅 등으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AI 특별 도시 분야에는 △전주형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 △피지컬 AI 100·100·100 프로젝트 등을 중심으로 AI 기획·연구·제조·실증이 연계되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30개 공약이 포함됐다.

이어 시민 돌봄 책임 도시 분야에는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 단계적 도입 △전주형 청년 월세 지원 확충 △전주형 통합돌봄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구축으로 시민의 부담을 덜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정책을 확대하는 30개 공약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5대 문화산업 도시 분야에는 △후백제 수도 전주의 고도(古都) 지정과 조선·근대 문화와의 연계성 확장 △민·관 협력형 영화·영상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 전주의 역사·문화자원을 산업과 연결하고 문화산업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할 17개 공약을 담았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민선 9기 공약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별 실행계획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과 관련 제도 정비, 국가예산 확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응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민 공약평가단과 주민배심원제를 통해 공약 이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공약 관리의 투명성과 시민 참여를 높인다는 구상도 더했다.

이번 민선 9기 공약은 조지훈 전주시장이 후보자 시절부터 전주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들을 토대로 구체화됐다.

이후 제41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 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가 구성돼 구체적인 공약사업안을 전주시에 제안했으며, 시는 소관 부서의 검토 및 시장 주재 보고회를 통해 공약사업을 구체화한 뒤 지난 26일 시민 공약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했다.

조지훈 시장은 "민선 9기 공약은 단순한 사업계획이 아니라 시민과 맺은 약속인 만큼 무엇보다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재정여건을 면밀히 살피면서도 시민의 삶을 책임지고 전주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평화동 주민 건강, 가까운 곳에서 챙긴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 '생활권 돌봄 거점' 역할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도시형보건지소로 문을 연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2023년 9월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전환 후 평화동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생활권 건강돌봄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평화1·2동 생활권의 인구는 지난 9월 기준 5만2988명으로, 이 가운데 등록장애인 수가 4415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받는 예방중심 건강관리'를 목표로 △건강생활실천 △심뇌혈관질환 예방 관리 △노쇠 예방 △장애인 재활 △구강보건 등 생애주기별 통합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민들의 질병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검사와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한편, 신체활동·영양 관리·비만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돕고 있다.

또한 올해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운영한 '실버운동교실'의 경우 주 3회, 2개 기수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기수별 48회씩 총 96회에 걸쳐 1·2기 운영을 마무리했다.

평화건강생활지원센터는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 건강관리에도 집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 등록 관리와 건강 상담을 기반으로 가정방문재활과 1:1 맞춤형 재활운동과 작업치료, 장애인 체조교실 등 연간 80회 이상의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평화동 권역의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사업을 진행 중이며, 치과 진료 접근성이 낮은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 안에서 받는 맞춤형 구강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나눔 기쁨 실천한 으뜸자원봉사자 6명 시상

29일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
4명·1개 가족·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 수여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해온 전주시민 4명과 1개 가족, 1개 단체가 '천사도시' 전주를 빛낸 으뜸자원봉사자로 선정됐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최이천)는 29일 전주시장실에서 '2026년 3분기 으뜸자원봉사자 시상식'을 열고, 평소 자원봉사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해 온 일반인 3명과 청소년 1명 등 총 4명의 자원봉사자와 1개 가족, 1개 단체에 전주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으뜸자원봉사자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25만여 명의 전주시 자원봉사자 중 분기별로 자원봉사 △활동 횟수 △봉사 시간 △참여 연수 등의 평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정성평가 부분의 경우 자원봉사 문화 확산 등에 기여도가 높은 봉사자 중 특별한 분야에서 우수함을 보인 봉사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먼저 일반인 부문에서는 △인후3동 다함께돌봄센터에서 초등학생 학습지도 및 프로그램 활동보조를 펼쳐온 유승민 씨(23세, 남) △전북특별자치도노인복지관에서 경로식당 배식봉사를 실천해 온 이영희 씨(74세, 여)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에서 개별학습 지도 및 급식 배식 보조활동에 힘써온 전수빈 씨(21세, 여) 등 3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청소년 부문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창의체험관에서 환경미화와 이용객 안전관리, 체험 안내 봉사를 성실히 이어온 이도빈 군(16세, 남)이 전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정성평가 가족 부문에서는 세대를 이어 봉사활동을 펼쳐오며 '봉사명문가 공모'에서 1위를 차지한 '사랑으로 빛나는 봉사명가'가 가족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들은 페트병 쓰레기 분리수거 활동은 물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서 배식 및 희망풍차 봉사활동 등을 꾸준히 펼쳐오며 대를 이은 나눔을 실천해 왔다.

단체 부문에서는 삼계탕 및 반찬, 명절 전 등 정성 어린 음식 나눔 봉사로 지역사회 온정을 나눠온 '사단법인 섬김'(대표 서영순)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금융도시 전주의 변화 기반 다진다!

'찾아가는 금융 파트너십' 추진

전주시가 이전 금융기관과의 소통·협력을 바탕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원에 위치한 이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금융파트너십'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시작으로 올해 새롭게 이전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면담을 추진하고, 이후 기존 이전기관까지 면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면담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방문 또는 유선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면담 내용은 △정주여건 관련 애로사항 △금융기관 이전·유치를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지역 상생 협력사업 논의 △지속적인 소통체계 구축 등으로,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면담 과정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계부서 협의와 관련 법령 검토 등을 거쳐 실현 가능성을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 ㈜데크카본, '제6기 소부장 으뜸기업' 선정

극한 환경용 복합재료 기술력 인정
전주시 방위산업 육성 박차

전주시 대표 방산 핵심 소재 기업인 ㈜데크카본(공동대표 신현규, 김광수)이 정부로부터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 받았다.

전주시는 29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개최된 산업통상부 '2026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내 기업인 ㈜데크카본이 '제6기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업부가 지정하는 '소부장 으뜸기업'은 대한민국 산업 공급망의 핵심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선도기업을 발굴·육성하는 정부 사업이다.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향후 5년간 기업 맞춤형 R&D 지원, 규제 개선, 사업화 및 해외진출 등 범정부 차원의 집중 지원을 받게 된다.



전주시는 29일 산업통상부 '2026년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내 기업인 ㈜데크카본이 '제6기 소부장 으뜸기업' 지정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진=전주시>

㈜데크카본은 항공기용 브레이크 디스크를 주력으로, 전투기 및 유도무기 분야에 적용되는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방산·항공 특화 기업으로, 이번에는 '극한 환경용 복합재료 제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전주시 유일의 정부 지정 방산업체인 ㈜데크카본은 이번 으뜸기업 선정을 통해 소부장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선도기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게 됐다.

시는 최근 방사청 국방벤처지원사업에 지역기업 2개사(보다, 바로텍시너지)가 선정된 데 이어 데크카본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에 선정되는 등 지역 방산기업의 잇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방위산업 육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은주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앞으로도, 국방벤처센터 지원사업,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방산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방시장 진출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해 지역 방위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주시, 여수 기술교류회서 탄소국가산단 알려

전주시가 신규 투자기업 발굴을 위해 탄소소재·부품·장비 분야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경쟁력을 알렸다.

시는 2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2026년 전북 탄소소부장 특화단지 기술교류회 및 간담회'에 참여해 탄소국가산단의 투자환경과 기업지원 인센티브를 소개하는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기술교류회는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전북 탄소소부장 특화단지 협력기업과 수요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특강,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시는 탄소국가산단의 조성 현황과 분양 계획, 입지 경쟁력, 투자 인센티브 등을 집중 홍보하고,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가능성을 타진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비롯해 다음 달 개최되는 카본코리아 등 다양한 기업 교류의 장을 활용해 타깃기업과의 대면 상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기업별 투자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투자 협약과 탄소국가산단 분양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제조시설용지는 지난 14일부터 수의계약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총 21필지가 분양돼 약 30%의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 /김은지 기자

전주시, 피지컬AI 시험·검인증 구축 전략 구체화

'피지컬AI 미래전략 협의체' 2차 회의
AI·로봇 시험·인증 전문가 참여

전주시가 피지컬AI 산업의 핵심 기반인 시험·검인증 거점 구축 전략을 구체화 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머리를 맞댔다.

시는 29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산업융복합지식산업센터에서 피지컬AI 분야 산·학·연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 피지컬AI 미래전략 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전주에 필요한 피지컬 AI 시험·검인증 기능과 구축 방향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전주시 피지컬AI 미래전략 협의체'는 전주시의 미래산업 전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피지컬AI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피지컬AI 산업·기술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출범 이후 열린 두 번째 회의로, 전주시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 신뢰성 혁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산업기술 분야의 공공 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모빌리티·AI 등 산업 전반의 시험·인증을 수행하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 등 관계 전문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피지컬AI 관련 시험·인증 및 표준화 거점 구축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배동석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AI데이터 품질팀장은 TTA의 AI 신뢰성 검·인증 체계와 절차 등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 등 전북 특화 분야와 연계한 검인증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성 중앙대학교 AI학과 교수는 '지능형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방안'을 주제로 새만금 현대차 로봇 파운드리 구축과 연계한 로봇 실증공유센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전주시에 필요한 로봇 시험·인증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순태 전북대학교 피지컬AI융합기술사업추진단장은 기술지원과 산업 적용 확산을 위한 검인증 비즈니스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이동남 KCL 책임연구원은 기존 시험·인증 전문기관 인프라와 연계해 시험 항목과 평가 기준을 함께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지역기업 대표들은 로봇 등 분야의 통합 인증 체계 부재에 따른 절차 복잡성과 인증 기준 불명확성에 대한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은지 기자

2026년 '책익는 가을' 작은도서관 책축제 개최

전주시 사립작은도서관협회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학대공원에서 '2026년 책익는 가을 작은도서관 책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전주시민들에게 다채로운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내 사립작은도서관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총 10개의 다양하고 풍성한 체험부스가 운영될 예정이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키링 만들기 △포토뱃지 만들기 △가죽브로치 체험 △원예 체험 △떡 만들기 및 떡메치기 등으로, 방문객들을 위한 공연과 먹거리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정혜민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익산시, 청년 자산관리 돕는다

11월 11일~12월 4일 전문가 초청 금융교육 청년 50명 모집

익산시가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르고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재테크 전문가와 함께하는 금융교육을 마련했다.

익산시는 오는 11월 11일부터 12월 4일까지 익산청년시청에서 청년 금융교육 프로그램 '청년 익테크'를 총 3회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인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청년들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고 실생활에 필요한 자산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연은 경제 칼럼니스트이자 재테크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인 김경필 강사가 맡는다. 김 강사는 유튜브 채널 '부티플'을 통해 금융 지식과 자산관리 방법을 알기 쉽게 전달해 왔다.

이번 교육에서는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소비·저축 습관을 점검하고, 장기적인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다룬다.

회차별 주제는 △11월 11일 '인공지능(AI) 시대의 자산관리' △11월 30일 '불확실성 시대의 노후 준비' △12월 4일 '부자 되는 돈 관리 시스템 만들기'다. 교육은 매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익산시 청년으로 모집 인원은 50명 내외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 익산청년시청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유은미 익산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 익테크가 청년들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르고 자신의 미래에 맞는 자산관리 계획을 세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금융과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소통공간 활성화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축제 아이디어 제안부터 사전 기획과 논의까지 직접 참여하는 '청년축제 기획단'도 운영한 바 있다.

/최준호 기자



완주군 소양농협은 지난 28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및 AI시대 통신서비스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완주군 소양농협>

완주군 소양농협, 여성농업인 교육

권익보호·삶의 질 향상

완주군 소양농협(조합장 유해광)은 지난 28일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생활법률 및 AI시대 통신서비스 맞춤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통신서비스 피해사례와 대응방안을 안내해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피해 예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해광 조합장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업현장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 및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농협, 맞춤형 지원 '앞장' 2(題)

농진청과 염소농가 현장 종합컨설팅

전북농협(본부장 김성훈)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조용민)은 29일 염소농가 30여명을 대상으로 남원축협(조합장 한경석) 조산지점 2층 회의실에서 축산현장 맞춤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북농협-농촌진흥청 간 업무협력에 따른 축산현장 종합컨설팅 확대 추진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컨설턴트(이은도 연구사)가 염소의 사양, 번식관리 등에 대해 강의형 컨설팅을 진행했다.

종합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염소농가의 수요자 중심 축산 신기술 확산 및 애로기술 해결을 통해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전북농협과 농촌진흥청과의 협업을 통해 축산현장의 다양한 기술수요 발굴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염소 사육농가에 신기술이 보급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전북농협>

김성훈 본부장은 "염소농가들이 신기술을 습득하고, 사양관리상의 문제점을 진단해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며"최근 염소 가격 하락 및 사료비 상승, 수급 불균형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축산물 수입 증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경찰청과 취약계층 외국인에 쌀 나눔

전북농협과 전북경찰청이 도내 거주하는 취약계층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농협중앙회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29일 전북경찰청(청장 신효섭)과 함께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거주자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식은 지난 6월 이뤄진 업무협약식 후속 행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외국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했다.

이날 준비된 쌀은 지역 내 외국인 지원 네트워크를 갖춘 4개 주요기관을 통해 전달된다.

전달 대상 기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굿네이버스 전북지부 △전북사회서비스원 △전주대학교 등 도내 주요 복지 및 교육기관 4곳이다.

신효섭 전북경찰청장은 "외국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범죄예방 등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훈 농협 전북본부장은 "타향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 이웃들이 우리 쌀로 지은 따뜻한 밥 한끼를 통해 희망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북농협은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기자



강경남 정읍경찰서장은 지난 28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찰서 회의실에서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정읍경찰서>

정읍경찰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간담회 개최

신종 피싱범죄 예방

강경남 정읍경찰서장은 지난 28일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근 급증하는 신종 피싱범죄 수법을 알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전방위적 홍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경찰서 회의실에서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읍경찰서장이 직접 정읍시의 피싱범죄 발생 현황과 최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공기관 사칭 대리구매 사기, 이른바 '노쇼(No-show) 사기'와 '투자 리딩방' 등 신종 피싱범죄의 주요 수법과 실제 관내 피해 사례를 중심으로 예방 및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기업을 사칭해 대리구매를 요청한 뒤 물품 대금을 가로채는 노쇼 사기 수법과 유명 연예인 소속사를 사칭한 뒤 팬심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는 로맨스스캠 사기 수법 등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경남 서장은 "대리구매 사기 등 노쇼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 온 전화나 비상식적인 내용의 전화 연락 등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고 재확인하는 습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실제 공공기관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읍경찰서는 앞으로도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유형별 사기 수법 및 예방 수칙에 대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신속 전파하는 등 관내 소상공인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피싱범죄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수산식품기업 육성 결실

수산물 직거래장터 로컬푸드 입점행사 개최

군산시가 지역 수산식품기업 육성 정책의 성과를 실질적인 판로 확대로 이어가기 위해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일원에서 '군산시 지역특화 수산물 직거래장터' 및 '수산식품 로컬푸드 입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그동안 군산시가 추진해 온 수산식품기업 육성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생산된 우수 수산가공식품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지역기업의 판매 촉진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현장에서는 지역 수산식품업체들이 참여해 다양한 수산특산품을 할인판매하고 무료 시식행사를 진행하는 등 군산 수산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자와 만나는 소통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산시는 수산식품기업의 지속적인 판로 확대를 위해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존 농산물 중심의 로컬푸드 직매장에 지역 수산가공식품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6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2개 업체가 입점해 활발히 제품을 판매중이다.

특히 최근 국립군산대학교 RISE 사업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를 지원하고, 개발된 제품이 실제 소비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직거래장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등 다양한 판매망과 연계하고 있다.

이는 대학·기업·지자체가 함께하는 '개발-상품화-사업화' 연계형 리빙랩(Living Lab) 모델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는 향후 수산식품의 판매처를 관내 매장에 한정하지 않고 타 지자체의 로컬푸드 직매장까지 공급망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는 지역 수산식품기업 육성의 성과를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고 실질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앞으로도 신제품 개발과 상품화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까지 이어지는 기업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수산식품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수산업이 함께 도약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사진=군산시>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깨끗한 축산농장' 신청 연중 접수

291개 농장 지정… 환경 개선 관심·실천 ↑

정읍시가 가축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악취를 줄이기 위해 지역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제도다. 가축 사육·관리 강화와 악취 저감 등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깨끗한 사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3분기 기준 정읍지역에서는 총 291개 농장이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돼 있다.

시는 신규 지정을 확대해 축산환경 개선에 대한 농가의 관심과 실천을 높일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축산환경이(e)로움시스템에 가입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령 등으로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농가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축사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 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 소독 실시, 출입기록부 작성·관리 등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현장평가에서 70점 이상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지정이 이뤄진다.

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참여를 독려하고 지속적인 환경개선 실천을 유도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축산환경은 농가의 자발적인 관심과 꾸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농진원, 지역 장애인에게 배움의 선물

발달장애인 교육용 컴퓨터 및 전자칠판 지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이 지난 28일 전북 군산시에 있는 발달장애인 시설 '사회적협동조합 감사합니다'에서 지역 장애인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기부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민간기업과 협력해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교육 기회를 넓히고,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교육에 필요한 정보기기를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노후 안전시설까지 개선해,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다.

농진원은 이번 행사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과 기초 컴퓨터 교육에 필요한 컴퓨터 20대, 75인치 전자칠판 1대를 지원했다.

교육용 컴퓨터는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 컴퓨터를 재활용해 마련했다.

기존 컴퓨터의 모니터와 저장장치 등을 개선하고, 자판과 마우스는 새 제품으로 교체해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기부에는 모니터와 전자칠판을 제조·공급하는 주식회사 수운도 이번 나눔에 동참해 전자칠판을 기부했다.

교육환경 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 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도 추진한다.

시설 내 모든 층의 비상계단에 약 110개의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미끄러짐과 낙상 사고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번 지원은 사용하지 않는 사무용 컴퓨터를 다시 활용해 자원 낭비를 줄이는 동시에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교육환경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노후 안전시설을 개선해 시설 이용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진원은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협력해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를 넓히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이웃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농진원 이석형 원장은 "이번 나눔이 지역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민간기업과 힘을 모아 지역사회에 필요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총, 초교 관련 보도에 "지도 경위 살펴야"

한 언론사 보도 반박…학교 측 근거자료 검토와 충분한 반론 보장 촉구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오준영)는 최근 한 언론사의 도내 초등학교 학교폭력 관련 보도와 관련해 "학생의 피해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동시에, 이를 확인하고 지도한 교사의 행위 역시 당시 상황과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면밀한 사실 확인과 충분한 반론 보장을 촉구했다.

앞서 한 언론사는 지난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학교가 학생을 공개적으로 추궁하고 신체접촉 상황을 재연시키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면담 장소와 절차, 보호자 안내 경위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영상과 녹취 등 명확한 반박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북교총은 교사의 초기 사실 확인 배경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최초 면담은 학교 폭력 정식 접수 전 학생의 성적 불쾌감 호소에 따라 하교 전 사실관계를 긴급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교실이 아닌 별도 공간에서 진술을 청취했으며, 동선 확인에 그쳤을 뿐 신체접촉 재연이나 사과 강요는 일절 없었다는 설명이다.

전북교총은 "'성추행범 멍에 지게 한 학교', '발뺌' 등 단정적인 보도 표현은 학교의 귀책사유가 이미 확정된 듯한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언론은 학교 측의 일부 답변만 다룰 것이 아니라, 반박 근거가 담긴 영상과 녹취 자료의 맥락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북교육청을 향해 "개별 교사와 학교가 수사와 언론 대응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법률·언론 대응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의 심리 회복과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함께 촉구했다.

오준영 회장은 "학생 호소를 듣고 사안을 파악하려던 교사들의 정당한 지도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부당하게 매도돼서는 안 된다"며 "근거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정정 및 반론 청구 등 단체 차원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최성민 기자



<사진=남원시>

'남원의 밤, 피오리움' 31일 열려

가을밤 즐길 거리 마련

남원시 미디어아트 전시관 피오리움의 야간 문화행사 '남원의 밤, 피오리움'이 지난 24일 시민들의 호응 속에 첫 행사를 마친 데 이어, 3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다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와 피오리움이 주최하며,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 문화 콘텐츠를 통해 피오리움의 매력을 높이고 남원의 야간 관광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당일 피오리움 달빛정원 일원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블랙라이트 낙서놀이, 어린이 블록 놀이, 에어바운스 등 체험 프로그램과 EDM 파티, 감성 주막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와 협력해 남원 출신인 변관영·윤환 학생(18세)을 비롯해 정윤영·김시현·양종모 학생(18세), 용성중학교 김한울 학생(15세), 왕치초등학교 윤건 학생(10세) 등이 참여하는 공연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지역 청소년 예술인재들이 무대에 설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의 밤, 피오리움'이 시민과 관광객에게 남원의 색다른 야간 매력을 알리고, 남원의 밤을 더욱 풍성하게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원만의 특색을 살린 야간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남원의 밤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교육청·전북대병원, 희귀질환 학생 지원 '맞손'

정밀 진단 및 사후 치료 협력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도내 희귀질환 의심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 치료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양 기관은 지난 28일 전북교육청 회의실에서 '희귀질환 의심 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학교 현장에서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을 조기에 발굴해 유전자검사 등 신속한 정밀 진단과 사후 치료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보건교사와 특수교육 담당자를 중심으로 대상 학생을 선별하고 병원 진료 연계를 위한 행정 지원을 맡는다.

전북대병원은 전북권역희귀질환전문기관을 통해 유전자검사 등 정밀검사와 전문 치료, 맞춤형 상담을 연계한다.

특히 올해는 의심 학생 5명을 선정해 1인당 최대 200만 원의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며 점차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오는 11월부터 도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사업 안내를 시작해 본격적인 의료 연계 지원에 나선다.

천호성 교육감은 "희귀질환이 의심되는 학생들이 진단과 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학교와 의료기관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전북교육청>

양종철 병원장도 "의심 학생이 적기에 정밀 검사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답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현대, 파이널 첫 경기 대전과 격돌

프로축구 전북현대모터스FC가 하나은행 K리그1 2026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에서 대전하나시티즌을 상대로 안방 승리를 노린다.

전북현대는 오는 31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과 K리그1 34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고 29일 밝혔다.

K리그1은 정규 33라운드를 마친 뒤 상위 6개 팀이 파이널A에서 최종 5경기를 통해 순위 경쟁을 벌이며, 전북현대는 2027-2028시즌 아시아축구연맹(AFC) 클럽대항전 출전권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상위권 순위 판도를 가를 분수령이다. 현재 4위 전북현대(12승 12무 9패·승점 48)와 3위 대전(13승 10무 10패·승점 49)의 격차는 승점 1점에 불과하다.

전북현대가 이번 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대전을 제치고 단숨에 3위로 올라선다. 올 시즌 정규리그 맞대결에서는 1승 1무 1패로 팽팽히 맞섰다.

전북현대는 파이널 라운드 5경기와 함께 2026-2027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집중력 있는 전술 운용을 앞세워 총력전에 나설 계획이다.

이도현 단장은 "시즌 최종 순위를 가르는 중요한 첫 경기인 만큼 홈 팬들에게 승리를 안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립예술단 '할로윈 콘서트' 개최

군산시립예술단이 31일 오후 6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야외광장에서 광장에 ON 피크닉 콘서트 '할로윈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10월의 마지막 날인 할로윈 데이와 가을의 낭만이 어우러진 특별한 야외 음악회로 기획됐다. 깊어가는 가을밤의 운치 속에 할로윈 특유의 유쾌하고 이색적인 분위기가 더해져 시민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무대는 이명근 군산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활력 넘치는 지휘로 펼쳐진다. 할로윈의 으스스하면서도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한껏 살린 서스펜스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 OST, 뮤지컬 역사상 가장 화려한 명작으로 꼽히는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를 비롯해 묵직한 감동을 전하는 영화 '쉰들러 리스트' OST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연주된다.

이와 함께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가을 노래 '가을이 오면'과 '잊혀진 계절' 등 친숙하고 감미로운 선율도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박현자 군산시 예술의전당관리과장은 "10월을 마무리하는 특별한 날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돗자리를 펴고 편안하게 음악을 감상하며 깊어가는 가을밤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전북대 정성용 교수팀, 차세대 호흡 진단 센서 기술 제시

전북대학교 정성용 교수 연구팀(신소재공학부 전자재료공학전공)이 날숨 속 미량 가스를 분석해 질병을 조기에 판별하는 차세대 호흡 진단 센서의 핵심 설계 전략을 제시했다.

전북대 정 교수팀은 호흡 분석에 쓰이는 산화물 반도체 가스센서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고, 질병 바이오마커를 선택적으로 검출하기 위한 설계 원리와 임상 적용 과제를 체계화했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스몰 스트럭처스(Small Structures)' 표지논문(Cover Feature)으로 선정됐다.

사람의 날숨에는 아세톤(당뇨), 이소프렌(심혈관), 암모니아(신장), 일산화질소(천식) 등 질병과 직결된 가스가 포함돼 있어 비침습 진단 기술로 주목받는다.

다만 날숨 속 높은 습도와 복합 가스 간섭으로 특정 성분만을 정밀하게 선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팀은 귀금속 촉매 제어와 나노 반도체 계면 설계, 촉매 필터 기술 등 센서의 선택성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종합 비교했다.

나아가 고습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하는 소재와 초소형 저전력 시스템, 가스 신호를 정밀 해석하는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기술을 통합 연구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성용 교수는 "이번 연구는 차세대 호흡 진단 플랫폼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소형 센서와 AI 기술을 융합해 일상에서 손쉽게 건강을 모니터링하는 비침습 헬스케어 기술 개발에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최성민 기자



정읍시, 전북도청서 고향사랑기부 홍보

정읍시가 지난 28일 전북특별자치도 청사 1층 로비에서 도청 직원과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와 지역 대표 답례품을 소개했다.

이날 홍보에는 정읍을 지역구로 둔 임승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과 염영선 기획행정위원장도 참여했다. 두 위원장은 현장에서 기부제도를 안내하고 정읍의 대표 답례품을 소개하며 홍보에 힘을 보탰다. 시는 홍보 공간에서 한우와 쌍화차, 귀리, 태추단감 등 정읍의 특색을 담은 답례품을 선보였다. 현장 기부자에게는 귀리 500g, 복분자주, 증류식 소주 등을 추가로 제공해 호응을 얻었다.

시 관계자는 "도 청사를 찾은 도민들과 소통하며 정읍의 우수한 답례품과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릴 수 있어 뜻깊다"며 "정읍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의 마음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가치 있는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이(e)음·은행 응용프로그램(앱) 접속 또는 농협 대면창구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부한도는 연간 2000만원 이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가을철 산불 예방 '총력'

산불조심기간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현장 중심 대응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가을철 산불 발생 위험에 대비해 예방 활동부터 초동 진화까지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맞춰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기간 시 산림과를 중심으로 산불감시원 50명과 산림재난대응단 66명 등 총 116명을 현장에 배치해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입산객의 부주의와 영농부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산림과 임도·등산로 주변의 순찰을 강화한다.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영농부산물 파쇄사업도 추진해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무인감시카메라 6대를 활용해 산불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신속한 상황 전파와 진화 인력·장비 투입으로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시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행위를 자제하고, 산불 발생 시 즉시 익산시 산림과 또는 11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산불은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지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응이 중요하다"며 "취약지역 감시와 예방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아날로그 감성으로 물든다

'손편지축제' 개최



<사진=군산시>

군산시는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형 육성사업으로 선정된 '제9회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를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군산우체통거리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점차 사라져가는 편지 문화를 확산하고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통한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에는 '느린 엽서 쓰기', '우체통거리 캐릭터 의상체험', '우체통 에코백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술버스 공연을 비롯한 문화행사가 함께 펼쳐져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사전 행사로 진행된 '손편지축제 엽서쓰기대회'와 '내가 그리는 우체통 대회' 수상작들이 우체통거리 곳곳에 전시돼 방문객들에게 따뜻한 공감과 소통의 장을 선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우체통거리가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거듭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손편지축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도시재생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경찰서, 금융기관과 보이스피싱 예방 합동 캠페인

익산경찰서(서장 이재성)는 금융기관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익산경찰서장과 익산원예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 6개소 등 30여 명이 참여해, 수사기관 사칭 등 주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에 대해 안내하고, 자체 제작한 현수막과 폼보드를 활용해 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성 익산경찰서장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 협업해 시민들이 보이스피싱 수법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혜택 풍성" 2(題)

군산시, 추가 캐시백 지원

군산시는 범부처 합동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맞아 11월 15일까지 군산사랑상품권 추가 캐시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할인행사를 통합한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로,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모바일·카드형 군산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하면 기존 구매 할인율 10%에 더해 결제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추가 지급한다. 특히 현재 시행 중인 착한가격업소 5% 추가 캐시백 지원과 중복 적용이 가능해 행사 기간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하면 최대 10%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는 11월 1일 구매분부터 군산사랑상품권 1인당 월 구매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구매한도 조정은 상품권 판매 추이와 조기 소진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 보다 많은 시민에게 구매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캐시백 지원이 시민들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최대 17% 할인

정읍시가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정읍사랑상품권 결제금액의 5%를 추가로 돌려주는 환급(캐시백)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시민의 소비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품권 이용 혜택을 늘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행사 기간 정읍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사용 금액의 5%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 12%의 상품권 구매 할인 혜택도 유지돼, 구매 할인과 추가 환급을 합산하면 총 17%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시는 누리집(홈페이지)과 이·통장 회보 등을 통해 행사 기간과 혜택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품권 이용 확대가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쓸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추가 환급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고,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국가예산 증액 총력전

최정호 시장, 국회 방문

11월 국회 예산 심의를 앞두고 최정호 익산시장이 직접 국회로 향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29일 국회의사당을 찾아 익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내년도 국가예산 추가 반영을 전격 건의했다.

이번 방문에서 최 시장은 국회 예산심사의 키를 쥔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강경숙 의원(예결위), 정일영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등을 잇달아 만나 정부 예산안에서 누락되거나 일부 삭감된 익산시 핵심 현안 사업들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 이춘석 국회의원실(익산갑) 등을 집중 방문해 사업별 추진 시급성을 공유하고, 다가오는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폭적인 지원과 전략적 공조를 당부했다.

이날 시가 국회에 강력히 건의한 미래 신산업 분야 핵심 사업은 △동물용 의약품 바이오팩토리 구축 △그린바이오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 등이다. 시는 이들 사업이 익산을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로봇 산업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담아낼 수 있도록 발로 뛰며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해 실질적인 결실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립도서관, 도서관 운영 유공 '문체부 장관표창' 수상

군산시립도서관이 '2026년 도서관 운영 유공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시상식은 28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한 '제63회 전국도서관대회'(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개회식과 함께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군산시 도서관관리과 관계 직원들이 참석해 수상의 기쁨을 함께했다.

이번 포상은 공공·작은·학교·전문·병영·교정시설도서관 등 전국 2만 2천여 개 도서관 가운데 운영 우수기관 58곳을 선정해 시상하는 자리로, 군산시립도서관은 지역 독서문화 진흥과 시민 중심 도서관 서비스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군산북페어'는 국내외 140개 팀과 방문객 9,800명이 참여하는 대표 책문화축제로 성장하며 군산의 독서문화 저변을 넓힌 성과를 높이 인정받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시민과 지역서점, 출판계가 도서관과 한마음으로 함께 키워온 소중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 일상 속 문화 거점이 돼 '책 읽는 도시 군산'을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 불꽃축제' 유관기관 합동회의

준비상황 종합점검 안전관리 최우선

군산시와 군산문화관광재단은 11월 14일 개최되는 '2026 군산 불꽃축제'의 안전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29일 군산시청 민방위상황실에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재준 군산시장과 부시장, 관계 부서장, 군산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군산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축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안전관리 및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축제 준비상황 총괄 보고를 시작으로 유관기관별 지원 계획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참석 기관들은 대규모 관람객 방문에 대비해 △공식 관람구역 및 인접지역 인파 밀집·동선 관리 △해상 안전 및 선박 통제 △화재·응급상황 대응 등 분야별 안전관리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아울러 행사 종료 후 관람객의 안전한 분산 퇴장과 단계적인 교통통제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 상권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안내 및 협조체계도 함께 논의했다.

군산시와 군산문화관광재단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분야별 세부 운영계획을 보완하고, 행사 개최 전까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과 현장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과수농가 당도·산도 측정 지원

과일 맛 살리는 수확 시기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용원)가 지역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과실의 당도와 산도를 측정해 적절한 수확 시기 판단과 고품질 과실 출하를 돕고 있다.

센터는 자동 당산도 측정 장비를 활용해 측정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농업인들이 과실의 상태를 수치로 확인하고,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산도 측정은 과실의 당도와 산도를 측정하고 두 수치의 비율인 당산비를 확인해 과실의 성숙도와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데 활용된다. 알맞은 시기에 수확하면 과실 고유의 맛과 품질을 살리고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출하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정읍지역에서는 37농가가 13.74ha에서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으며, 농가 수와 재배면적 모두 전북특별자치도 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센터는 내륙지역 감귤의 높은 당도와 적절한 산도가 어우러진 새콤달콤한 맛을 강점으로 꼽고 있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확기를 앞두고 만감류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당산도 측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가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수확 시기를 판단하고 고품질 과실을 출하할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모현 제5공영주차장' 본격 운영

주차난 해소 기대

익산시 모현동 상가와 주택가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익산시는 모현동 일원의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모현 제5공영주차장'이 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모현동2가 익산경찰서 인근에 들어선 모현 제5공영주차장은 총 73면 규모로 마련됐다. 일반형 주차면을 비롯해 경형, 친환경 전기차 충전 구역 등 다양한 차량 수요를 고루 반영했다.

특히 익산시 공영주차장 중 최초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한 배려형 주차시설을 대거 도입해 눈길을 끈다. 궂은 날씨에도 휠체어 이용자가 비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구역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아울러 임산부와 영유아, 고령자 동반 가족을 위한 '가족배려주차구역'을 처음으로 적용해 교통약자 편의를 극대화했다.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 서비스도 전면 가동한다. 익산시 통합주차관제센터와 실시간 연동해 관리하며, 카카오T 무정차 출차, 자동결제와 사전결제 시스템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 차량 정보 연계를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경차, 저공해 차량 등 감면 대상 차량은 출차 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자동으로 요금 감면을 받는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동안 무료이며, 이후 30분마다 500원이 부과된다. 하루 최대 요금은 6,000원으로 제한했다. 평일 야간(오후 6시~익일 오전 9시)과 주말, 공휴일에는 인근 주민과 방문객을 위해 무료로 개방한다.

시는 무단 장기 주차와 방치 차량을 차단하고 주차장 회전율을 끌어올려, 실제 모현동 상권을 찾는 실이용자들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엔아이티, 군산시에 장학금 1억 기탁 약정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9일 ㈜엔아이티(대표이사 김주한)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에 5년간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기탁하기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 약정은 지역 학생들이 소질과 잠재력을 키우고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엔아이티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천만 원씩 기탁하며, 기탁금은 군산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 및 교육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엔아이티는 2002년 설립된 군산 소재 환경전문기업으로, 산업폐기물 소각과 폐수 수탁처리 등의 사업을 통해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교육기관과 복지기관 등에 꾸준히 후원하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을 실천해 오고 있다.

이에 김재준 군산시장은 "학생들이 더 나은 교육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신 김주한 대표이사와 ㈜엔아이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우리 아이들이 군산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기업과 사회 각 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지역 경제 활성화 '최선' 2(題)

김제 '쨈매 별빛 야(夜)시장' 운영

김제시가 오는 31일 '쨈매 별빛 야(夜)시장'을 처음 선보인다.

먹거리와 문화, 관광이 결합한 야간 콘텐츠를 통해 시민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원도심 일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쨈매 별빛 야(夜)시장'은 김제전통시장부터 중앙시장까지 이어지는 원도심 일대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장 상권과 인근 동헌 내아, 향교, 성산 등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방문객의 발길이 시장을 넘어 원도심 곳곳으로 이어지도록 구성했다.

이번 야시장에는 김제전통시장과 중앙시장 양쪽 시장을 중심으로 다양한 먹거리와 문화공연이 펼쳐지며, 디저트·카페와 농산물·농식품, 사회연대경제존까지 더해져 다채로운 먹거리, 볼거리를 만나볼 수 있다.

'쨈매 별빛 야(夜)시장'은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김제시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사업의 실행 주체이자 참여 주체로 나서 지역 내 다양한 주체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원도심을 잇는 김제형 연대·협력 야시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31일 첫 개장을 시작으로 11월에서 12월까지 월 1회씩 운영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쨈매 별빛 야시장이 시민과 상인,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장이 돼, 김제 원도심에 새로운 활기를 더하길 기대한다"며 "김제만의 특별한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해 원도심과 지역경제에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미식문화거리 축제' 연다

고창의 오랜 맛과 골목의 이야기가 하나의 식당으로 연결된다. 고창군이 오는 11월 6~8일(3일간) 고창읍 성산2길 일원에서 '고창미식문화거리 개업식'을 테마로 상권 축제를 연다.

이번 행사는 고창의 오랜 음식점과 골목상권이 가진 매력을 한데 모아 지역민과 방문객에게 새로운 미식 경험을 선사하고, 고창 미식문화거리의 시작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의 핵심 콘셉트는 7일 시행되는 '1,000년 경력의, 120m 거리식당'이다. 오랜 시간 지역 주민들의 사랑을 받아 온 음식점들이 모여 골목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식당으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롱테이블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공간을 넘어 상권 전체가 함께 만드는 공동 식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사업인 로컬테마상권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고창군은 지역 음식점과 상인들이 보유한 오랜 경험과 음식문화 자산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 20억원과 군비 20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의 사업비로 성산2길 일원을 고창을 대표하는 미식문화 거점으로 육성하고, 전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교두보로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지역 상인들과 힘을 모아 고창미식문화거리만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방문객의 발걸음이 골목상권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보훈단체協·새고창장례식장, 협약

보훈가족 장례비 지원

고창군보훈단체협의회(회장 이연구)와 새고창장례식장(대표 조미영)이 지난 28일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보훈가족의 장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유공자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를 강화하고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고창군보훈단체협의회 이연구 회장(6·25참전유공자회 지회장)과 새고창장례식장 조미영 대표를 비롯해 광복회 신형범, 상이군경회 전장옥, 전몰군경유족회 이만동, 전몰군경미망인회 유정자, 무공수훈자회 성홍제, 고엽제전우회 임용호, 월남전참전자회 임형순 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장례비 지원에 협력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장례문화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조미영 대표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국가유공자 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그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최고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며, 앞으로도 보훈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과 지역사회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예술회관, 11월 12일 대학가요제 리턴즈 공연

부안군은 오는 11월 12일 오후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2026 대학가요제 리턴즈 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대학가요제와 함께 청춘을 보냈던 세대에게는 그 시절의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명곡의 감동을 전하는 음악 공연이다.

출연진으로는 감성적인 음악으로 사랑받아 온 박학기, 원미연, 임지훈, 이재성, 샌드페블즈(여병섭)가 함께한다.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 원미연의 '이별여행',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이재성의 '그 집앞' 등 서정적인 감성을 담은 명곡부터 샌드페블즈(여병섭)의 '나 어떡해'까지 관객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노래들이 무대를 채운다.

특히 이번 공연은 세대를 아우르는 친숙한 음악과 함께 지난날의 추억을 되새기고 음악으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티켓은 오는 11월 5일 오전 9시부터 티켓링크 인터넷 예매와 부안예술회관 1층 사무실 현장 예매를 동시에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공연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부안예술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11월 2~6일까지 보너스 걷기 챌린지 운영

김제시보건소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 건강증진 걷기 챌린지를 마무리하며, 참여 시민들의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보너스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10월 말 종료된 걷기 챌린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어가고, 일상 속 걷기 실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기존 챌린지보다 참여 기간을 짧게 구성하고, 추첨을 통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소소한 즐거움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김제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11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총 3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추첨 대상이 된다. 하루 최대 7천 보까지만 인정되며, 목표를 달성한 참여자 중 50명을 무작위 추첨해 '랜덤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신규 걷기 앱인 '모두의 러너'를 통해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모두의 러너' 앱을 내려받아 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회원가입 후 앱 내 '챌린지' 메뉴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 김제시 챌린지를 선택해 참여 예약을 완료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걷기 챌린지에 꾸준히 참여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보너스 챌린지가 걷기를 즐겁게 이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생태·휴양 성지 도약

갯벌 세계유산센터 및 생태갯벌플랫폼 첫 삽

민선 9기 고창군의 '고창 서해안권 관광개발사업'의 마중물격인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와 '노을생태갯벌플랫폼 사업'이 첫 삽을 떴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심원면 만돌리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 부지에서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 건립 및 노을 생태갯벌플랫폼 조성사업'의 힘찬 출발을 알리는 기공식이 열렸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박성만 고창군의회 군의장 및 군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도의원, 지역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는 총사업비 170억원(국비 119억원, 도비 25.5억원, 군비 25.5억원)을 투입해 지상2층, 연면적 2,605㎡ 규모로 2027년까지 건립된다. 완공 후에는 세계자연유산의 전시·홍보·교육 및 생태관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노을 생태갯벌플랫폼'은 총사업비 196억원(국비 98억원, 군비 9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29,092㎡ 부지에 자연유산마당, 쉐니어 언덕, 노을 광장, 노을 이야기길 등이 들어서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대규모 친환경 생태공원으로 탄생한다.

민자유치 사업인 '고창종합테마파크'도 부지 정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모나용평은 이곳에 중대형급 휴양형 콘도미니엄 471실을 비롯해 700석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며, 관광활성화를 위해 주변 염전부지를 활용해 18홀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건설한다.

이외에도 국내최초 카누슬라럼 경기장을 비롯해, 고창-부안을 연결하는 노을대교 사업 등도 순항중이다.

군은 관련 사업이 모두 마무리되는 2030년 말쯤이면 고창 서해안권이 명실상부 국내 최고 생태·휴양 성지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오늘 첫 삽을 뜬 고창갯벌 세계유산센터와 노을 생태갯벌플랫폼은 고창의 청정 생태자원을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발전시킬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체류형 로컬 관광 '성료'

자신만의 시선으로 기록

부안군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1박 2일간 체류형 로컬 관광 프로그램 '영'감'의 부안'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안군 크리에이터 관광 기획 및 시범운영 용역의 일환으로 지역 청년 여행사가 직접 기획·운영했으며 참가자들이 부안 곳곳을 여행하며 자신만의 시선으로 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경기·대전·창원·진주·전주·완주 및 부안 등에서 참여한 20~60대 참가자 16명은 첫날 부안청년UP센터에서 콘텐츠 제작 특강을 받은 뒤 보안면 사랑감마을에서 마을 산책과 감 수확, 와인 시음 등을 체험하고 '감 쏘굳 재즈 페스티벌'을 함께 즐겼다.

둘째 날에는 참가자들이 직접 여행 코스를 정하는 '자율 영감 여행'을 통해 채석강, 내소사, 솔섬, 부안청자박물관 등 부안 곳곳을 탐방하고 '영감 키트'에 여행의 순간을 기록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확보 전방위 대응

핵심사업 반영 위해 지역 국회의원 만나 설득

김제시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 및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 국회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국회를 찾아 설득 총력전에 나선 것이다.

29일 이현서 부시장은 박지원, 윤준병, 박희승, 안호영 의원실을 찾아 김제시 중점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하며, 예산안 추가 반영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한 중점 사업은 새만금 녹지면적 확충을 위한 △새만금 국가정원 조성, 수변도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스마트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환경기초시설 주민수용도 제고를 위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도 21호선 확장 등이 있다.

특히,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지원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 소속된 만큼 국가예산 확보 및 중점 사업 현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사업별 필요성을 피력하며 예산안 추가 반영에 힘을 모아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또한, 전북지역 국회의원인 윤준병·박희승·안호영 의원실도 차례로 찾아 의원별 상임위 관련 주요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 부시장은 "국가예산 확보는 곧 지역 성장의 추진력이며, 이날 건의한 중점 사업들은 지역 도약의 전환점이 될 사업"이라며, "미래 성장을 견인할 중점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와 기획처를 수시로 누비며 건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적극적 복지 실현 나서

고창군이 복지 신청주의 타파를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먼저 찾아주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군은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방식을 급여일 오전 9시로 통일 시켰다. 입금시간이 고정되면서 주민들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입금을 확인하고, 계획적인 계좌관리가 가능해졌다.

또한, 사회복지급여 지급과정에서도 신규신청자의 추가급여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중지자는 매년 선정기준을 재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위기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맞춤형 사회복지급여를 안내하고 지원체계망을 작동하고 있다.

급여 심의를 담당하는 생활보장위원회 개최를 상시화하면서 가족구성 변화 등으로 수급이 어려웠던 39세대에 적정 복지급여가 지급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 치료를 이어가며 의료, 돌봄, 식사, 물품 등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돕는 '재가의료급여사업' 대상자도 올해 9세대까지 확대했다.

오수목 고창군 사회복지과장은 "지역주민의 복지 만족 향상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가는 복지 행정을 실현해 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상설시장,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11월 4일 개최

부안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오는 11월 4일 부안상설시장 야외주차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군과 전북특별자치도가 후원하고 전북특별자치도상인연합회, 부안상설시장상인회, JTV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과 상인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행사는 오전 11시 예심에 이어 오후 1시 본선이 진행되며 개그맨 황기순의 진행으로 노래자랑과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조승구, 미스김, 김다나, 고석훈 등 초대가수 공연과 경품 추첨도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노래자랑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은 오는 11월 3일까지 부안상설시장 상인회로 하면 된

남정수 부안상설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시장가요제가 상인과 군민이 함께 어울리고 웃으며 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사랑카드 쓰면 최대 17% 혜택

11월 15일까지 후캐시백 5% 추가 적립

고창군이 '2026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10월29일~11월15일)'과 연계해 고창사랑카드의 할인 혜택을 최대 17%까지 확대하고,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나선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범정부 소비촉진 행사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추진되며, 행사 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고창사랑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후캐시백 5%를 추가 적립한다.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유통업계, 전통시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소비촉진 행사로, 내수 활성화와 지역 상권의 소비 진작을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고창사랑카드 이용자는 기존 최대 12%(선할인 10%+후캐시백 2%)에서 최대 17%(선할인 10%+후캐시백 7%)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월 구매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70만원이며, 추가 후캐시백 혜택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행사 종료 후에는 기존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고창군은 이번 추가 캐시백 행사가 군민의 소비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창사랑상품권을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 혜택과 소상공인 지원을 연계하고,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김제시는 29일 교동 314-56번지 일원에서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성주 김제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내외 귀빈, 공사 관계자, 지역 주민 및 화물 운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지난 2020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도비 45억 5천만 원, 시비 38억 7천6백만 원 등 총사업비 84억 2천6백만 원을 투입해 조성됐다.

주차 공간은 대형화물 152대, 승용차 108대, 특수차량 8대 등 총 268면의 규모로 관리실을 비롯해 장거리 운송으로 지친 운전자들을 위한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됐으며, 부대시설로 전기차 충전기 4대와 무인정산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을 갖춰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김제시는 이번 공영차고지 준공을 통해 도심지 교통안전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온봉기 기자

생활 기반 다져 지역소멸 위기 극복 2(題)

순창군,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20세대 공급

순창군이 조성하는 쌍치면 공공임대주택 준공이 오는 11월로 다가오며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전망이다.

군은 다음 달 준공 예정인 쌍치면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사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쌍치면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총사업비 49억원이 투입된 이 주택은 지상 4층, 연면적 1,435㎡ 규모의 연립주택 1동이며, 내년 1월초 입주를 앞두고 있다.

전용면적 59㎡형 12세대와 38㎡형 8세대의 총 20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월 임대료는 59㎡형은 15만2천원, 38㎡형은 10만1천원으로 인근 시군보다 저렴하다. 특히 지역 내 임대 주택을 찾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무주택 서민에게 최적의 주거지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쌍치면 공공임대주택은 면소재지 내에 위치하여 행정복지센터, 농협, 초등학교·중학교, 터미널, 보건지소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있다. 또한 28대 규모의 주차장이 완비되어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나 청년 등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 농촌유학 가족 등으로, 자격 요건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순창군청 농촌활력과 공공주택팀 또는 쌍치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순창=박지헌 기자

남원 운봉 주민·출향민 힘 모아 출생축하금 지원

남원시 운봉읍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 출향민과 주민들이 함께 기금을 만들어 출생축하금을 지급했다.

운봉읍은 지난 28일 운봉읍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운봉읍 출생축하금 지급 행사'를 열고,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자 15명에게 총 1,800만원의 축하금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운봉 출향인인 동일운수 김복태 회장을 비롯해 (사)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 신동열 이사장 및 임원, 운봉읍장, 지역 기관·단체장,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자와 가족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출생축하금 지급 대상자는 신규 출생아 7명과 기존 지급 대상자 8명 등 총 15명으로, 신규 대상자에게는 1인당 200만원, 기존 대상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지급했다.

축하금은 출생아 1명당 첫해 2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이후 3년간 50만원씩 분할 지원해 총 3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운봉읍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협회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사)운봉아이키움새싹협회는 지난 2024년 4월 김복태 회장이 출생축하금 지원사업을 제안하고 법인 설립 기금 5천만원을 출연하면서 첫 발을 내디뎠다. 이후 지역의 뜻있는 인사들이 힘을 모아 2024년 10월 28일 협회를 설립했으며, 같은 해 출생아 7명에게 1,400만원, 2025년에는 신규 및 기존 대상자 8명에게 850만원을 지급했다.

운봉읍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운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국회상주반 가동…국비 증액 총력

국회 예산심의 맞춰 상주반 운영
의전원·산림치유원 등 증액 건의

남원시는 국회 국정감사 이후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예산심의가 진행됨에 따라, 핵심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상주반을 운영하고 핵심사업 국비 증액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지난 9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국회상주반을 운영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왔으며, 국회 예산심의 기간 동안 예산 증액 논의에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주요 증액 대응사업으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조성, △남원 인월~산내 국지도 60호선 건설, △남원 이백~운봉 국도 24호선 건설, △입암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피지컬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 확충과 시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핵심사업이 포함된다.

특히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남원 설립이 확정된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필요한 예산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립 지리산 산림치유원 조성과 주요 도로 건설사업, 피지컬AI 자율형 통합물류 국가실증센터 구축사업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와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또한, 남원경찰수련원 건립, 연합형 행복기숙사 건립,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등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대도약 발전委, 미래 핵심과제 발굴 본격화

피지컬AI·햇빛소득 등 전략 검토
인구유입·인재양성·체류관광 모색



<사진=완주군>

완주군의 미래 100년을 설계하는 민·관·학 정책 협력 기구인 '완주대도약발전위원회'가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4개 분과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선 9기 핵심 정책과제 발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완주대도약발전위원회는 기획조정위원회와 자문단, 4개 분과위원회, 추진지원TF로 구성됐으며,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분과회의에는 산업·교육·문화·관광·농업 등 각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분야별 쟁점을 공유하고, 완주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핵심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분과별로 살펴보면 △경제·산업·도시 분과는 피지컬AI 생태계 조성 방향과 군민 참여형 햇빛소득 모델을, △사회갈등·교육 분과는 인구 10만 도시 기반 강화를 위한 인구 유입 방안과 미래 산업과 연계한 완주형 인재 양성 체계 구축 과제를 논의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복지 분과는 경관 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방안과 파크골프 인프라 기반 스포츠 마케팅 전략을, △농업·환경 분과는 농산물 유통 거점 구축을 통한 산지 유통 경쟁력 강화 방안과 완주 한우 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했다.

군은 분과회의에서 나온 자문 의견과 정책 제안을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실행 가능한 정책과제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기 분과회의와 기획조정위원회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발굴된 과제가 실제 군정에 반영되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사랑상품권 최대 25% 혜택…소비 촉진 도모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한시 상향
가맹점 7%·착한가격업소 15% 환급

남원시는 29일부터 오는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 기간 지역사랑상품권인 '남원사랑상품권'의 인센티브를 한시적으로 상향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향 운영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소비진작 행사에 발맞춰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행사 기간 중 남원사랑상품권을 기존과 동일하게 10% 할인 구매할 수 있으며,구매한 금액으로 일반가맹점 결제 시 7%, 착한가격업소 결제시 15%를 추가로 페이백(추가 지급) 받아 최대 25%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한시 상향은 모바일형과 카드형 남원사랑상품권에 적용되며, 페이백은 별도 절차 없이 카드·모바일상품권으로 결제 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이번 인센티브 상향을 통해 △ 소비 활성화 분위기 조성, △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증대, △ 지역경제 순환 활성화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책수당이나 정부지원금 등 공공성 자금의 결제분은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독서경영 10년 결실…공로패 수상

'최우수' 이어 꾸준히 재인증
책 읽는 공직문화·소통 확산

완주군이 서울 서초구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 시상식'에서 공로패를 수상하며 10여 년간 이어온 독서경영의 결실을 인정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독서경영 우수 직장 인증제는 직장 내 책 읽는 문화를 확산하고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소통을 이끈 기관 및 기업을 발굴·격려하는 제도다.

군은 2016년 대한민국 독서경영 우수 직장 최초 인증과 함께 '최우수상'을 거머쥔 이후 꾸준히 재인증을 획득하며 책 읽는 일터를 가꿔왔다. 2020년 '우수상' 수상에 이어, 지속적인 독서 인프라 구축과 독서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올해 뜻깊은 공로패 수여 기관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관우 도서관사업소장은 "독서는 개인의 성장뿐 아니라 조직 내 소통과 협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책을 가까이하는 환경을 넓히고, 배움과 소통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공직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의회, 태양광사업 주변마을 주민과 소통

화산면 3개 마을 주민과 간담회
배분 기준·유지관리 방안 등 논의

완주군의회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이 친환경연료화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하고, 주민의견을 사업 추진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8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화산면 돈의·수실·부현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마을 태양광 발전사업의 추진 방향과 안정적인 수익금 운영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3개 마을 주민대표와 완주군 관계부서 공무원, 고산서봉마을에너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고산 서봉마을에너지의 실제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법인 설립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운영, 수익금 관리 및 활용에 이르기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들을 살펴봤다.

특히 김 위원장은 주민들이 제기한 법인 설립과 운영체계, 수익금 배분 기준, 시설 유지관리 비용 등 주요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마을별 여건에 맞는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과제들을 확인했다.

또한 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수익금 배분에 따른 주민 갈등 등 기존 운영사례에서 나타난 시행착오를 공유하며, 사업 초기부터 주민 간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논의했다.

한편, 각 마을은 주민총회 등을 통해 법인 설립과 수익금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완주군은 부지 확보와 사업 추진방식, 관련 행정절차 등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사진=남원시>

남원시, 자살예방사업 유공 도지사 표창 수상

남원시는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박지영)과 보건소 자살예방사업 담당자가 '2026년 자살예방사업 유공' 전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사회 중심의 촘촘한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자살예방관(부시장)을 중심으로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3월부터 9월까지 지역 자살예방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과 기관별 역할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다.

또한, 남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굴부터 상담·사례관리, 치료 연계, 자살시도자와 유족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생명존중안심마을 및 관내 이·미용실 15개소와 연계한 '마음쉼표 이·미용실'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통해 주민의 우울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상담으로 연계하는 등 일상 속 자살예방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사회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31일 보부상마켓 개막

완주군이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2026 보부상마켓 with 완주몰'을 열고 가을철 나들이객 맞이에 나선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펼쳐지는 이번 장터에는 군 직영 쇼핑몰 '완주몰' 입점 농가 12곳과 전국 보부상 셀러 80곳이 참여한다.

개최 때마다 오픈런(개장 질주)과 긴 대기 줄을 기록하며 두터운 마니아층을 자랑하는 보부상마켓의 명성에 걸맞게, 전국 각지의 감각적인 수공예품과 생활 소품, 패션 아이템은 물론 완주산 제철 농산물과 신선 농가공품을 풍성하게 선보인다.

삼례문화예술촌의 문화예술을 함께 누리는 특별한 기회도 열린다. 예술촌은 11월 15일까지 20세기 미술사 거장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가을 특별기획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展)'을 무료로 함께 운영해 마켓을 찾은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서진순 문화역사과장은 "삼례문화예술촌에서 펼쳐지는 이번 플리마켓으로 완주군의 문화공간을 전국에 알리고 삼례 관광권역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군민들과 방문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섬진강 일원서 토종 쏘가리 2천마리 방류 행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회장기관 순창군)는 29일 순창군 유등면 화탄마을 앞 세월교 일원에서 섬진강의 생태계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토종어류 방류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섬진강의 주요 생태자원인 토종어류를 보호하고,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해 지속 가능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실무진을 비롯해 민간 환경단체 관계자와 지역주민 등 20명이 참석했으며, 섬진강에 토종어류인 쏘가리 약 2천 마리를 방류했다.

특히 이번 방류행사는 섬진강 토종어류인 쏘가리의 개체 수 증진과 수산자원 회복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함께 섬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되새기고 하천 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섬진강의 생태환경 보전과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완주 청소년들, 대만서 아동친화도시 국제교류

완주군이 아동·청소년의 국제적 시야를 넓히고 아동친화도시 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대만 타이베이에서 아동친화도시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군은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3박 4일간 관내 청소년 10명과 인솔자 5명 등 총 15명이 참여하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5개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운영위원회 임원들이 주축이 되어 해외 교육환경과 첨단 문화·과학 시설을 직접 둘러보고 국제적 감각을 익히도록 기획했다.

참가 청소년들은 타이베이 현지의 조지고급공상직업학교와 다안고급공업직업학교를 방문해 대만의 실무 중심 직업교육 환경을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국립고궁박물원과 국립대만과학교육관을 차례로 찾아 풍부한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최신 과학기술 콘텐츠를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현장 학습을 이어간다.

군은 2023년부터 군비를 투입해 아동·청소년 국제교류를 정례화하고 있다. 첫해 청소년동아리대회 우승팀의 싱가포르 연수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2025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 및 위탁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일본 교류를 지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지역 공방 연계 평생학습 기회 확대

순창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관내 공방 4곳과 연계한 '로컬공방형 배움터사업'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2026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평생학습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공방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군민들이 평소 쉽게 접하기 어려운 공예·전통문화 체험을 가까운 지역 공방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원데이 클래스 형태로 운영해 일상 속 배움의 기회를 넓혔다.

프로그램은 △오늘공방의 도자기 만들기 △맑음공방의 도마 만들기 △지란지교의 동동주 빚기 △그때그때공방의 아로마홀더 및 인센스스틱 만들기 등 총 4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각 공방에서 5회씩, 회당 10명을 대상으로 총 20회에 걸쳐 운영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로컬공방형 배움터사업은 지역 공방의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해 군민들에게 새로운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연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군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헌 기자



무주군 "배움엔 나이가 없다" 제24기 노인대학 졸업

사)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 부설 제24기 노인대학이 29일 11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날 무주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2층에서 진행된 졸업식에는 노창환 무주군 부군수와 오순덕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학생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선자 총학생회장(78세, 무주읍)이 학생 대표로 졸업장을 받았으며 조병리 학생(76세, 설천면)과 김순성 학생(85세, 안성면), 최은자 학생(78세, 안성면)이 성실한 학업 수행으로 노인대학 발전과 운영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받았다.

제24기 노인대학 졸업생들은 '노인강령' 낭독의 시간을 통해 사회의 어른으로서 항상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지니는 동시에 고귀한 경험과 업적을 후손에게 계승할 전수자로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부 대한노인회 무주군지회장은 "올해도 많은 분이 배움과 실천으로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돼주셨다"라며 "지금 마음에 품은 열정과 지혜, 지역과 이웃을 품는 따뜻한 마음이 대대손손 무주군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최대 17% 특별할인

진안군은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인 소비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18일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 이번 특별할인은 준비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할인 기간 동안 지류형 상품권은 12% 선할인이 적용되며, 카드형 상품권은 12% 선할인에 5% 후캐시백을 더해 최대 17%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별할인 기간 내 결제 금액의 5%가 캐시백으로 지급되며, 캐시백 한도는 개인당 최대 2만 5,000원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고물가로 지친 군민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관내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 신평면, 10월 한 달간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임실군은 신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2단계)을 통해 10월 한 달간 아동부터 청·장년층,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연령별 수요와 관심사를 반영한 맞춤형 활동으로, 문화·체육·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세대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지난 13일에는 지역 파크골프 동호회원 30여 명이 참여한 '신평면 어울림 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와 주민 간 친목을 도모했다. 또한 15일과 22일에는 '신평면 어울림 작은 음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간 교류의 장을 마련했으며,

지난 24일에는 신평면 유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과학놀이터 체험행사'를 개최해 평소 농촌지역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체험과 공연을 제공하며 아이들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키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임실=한병열 기자

폭설·지진 등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무주군, 지진 복합재난 '실전 훈련'

안전한국훈련 실시 기관 간 협업 체계 점검

무주군은 29일 무주군립 최북미술관과 김환태문학관 일원에서 '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무주군과 무주소방서가 공동 주관한 이날 훈련은 지진으로 인한 건물 붕괴와 화재 발생 등 복합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무주군청 공무원들과 경찰·한전 등 기관·단체 관계자 등 2백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기관·단체 간 협업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현장훈련으로 진행됐다.

특히 최근 지진, 태풍, 폭설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난의 초기 대응이 중요해짐에 따라 건물 붕괴와 화재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을 가정해 인명구조와 화재 진압, 복구까지의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통합 지원본부를 가동해 재난 상황에 따른 신속한 의사결정과 기관별 임무 수행, 인력·장비 동원 등 실질적인 협업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겨울철 제설작업·안전교육

겨울철 도로안전 확보

장수군은 겨울철 대설과 도로결빙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설담당자와 제설작업 투입 인력을 대상으로 제설작업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2027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담당자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작업으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산간지역이 많고 겨울철 기온이 낮아 강설과 도로결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제설장비의 효율적인 운용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중점을 뒀다.

또한 대설특보 발효 시 비상근무체계 가동과 제설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아울러 급경사지와 고갯길, 상습결빙구간 등 취약구간에 대한 사전점검과 선제적 제설작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제설차량과 살포기 등 주요 장비의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제설자재 사전 확보와 대응체계 정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전북 시·군의장,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확대

오광석 의장 건의안 채택 2년 한시 시범사업 한계 지적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한시적 운영과 높은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업의 지속 운영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사진=무주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한시적 운영과 높은 지방비 부담을 지적하며 정부가 사업의 지속 운영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오광석 의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잠시 하고 멈출 것이 아니라 법적 근거를 갖춘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해야 하고 국비 비율을 대폭 높여 지방정부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소멸위기 정도가 심한 곳은 지급금액 확대 및 군비 부담 추가 완화 등 적극적 지원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시·군의장들은 이어 결의안을 채택하고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대폭 확대와 안정적 국가 재정지원 체계 구축 △소멸위기 수준 세분화 및 심각한 지역에 대해 농어촌 기본소득 금액을 차등지급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진안군, 공공비축미곡 1,861톤 매입

매입품종 신동진·해담 최종 정산 12월 말 일괄 지급

진안군은 29일부터 2026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시작했으며, 내달 25일까지 16회의 매입을 통해 1,861톤(조곡 기준)을 매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0만 톤(정곡기준)을 매입할 계획으로 이는 전년 45만 톤보다 감소한 양이다. 진안군의 논콩 재배면적 감축정책 참여에 따른 농식품부 인센티브 236톤을 확보하기도 하였으나, 매입 배정량은 전년 매입량의 84.5%로 줄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외에 지역농협에서는 산물벼 수매를 추진하거나 중계하고 있고, 공공비축미곡 매입 이후 건조벼 매입 등이 일부 이루어질 예정이다.

올해 매입품종은 '신동진'과 '해담'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되는데, 우선 공공비축미 출하 직후 포대(40kg 조곡 기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 뒤 오는 12월 말 최종 정산 금액을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매입 희망 농가는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할 경우 향후 3년간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공공비축미 품종 외 다른 품종의 벼가 출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중장비 면허 취득 교육 운영

굴착기·지게차 면허 취득 지원

장수군은 장수군로컬JOB센터(센터장 전경애)가 내달 10일부터 군민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장수군민을 위한 중장비(굴착기·지게차) 교육'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구직자들이 중장비 조종 기술과 안전관리 능력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로의 취업 기회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3톤 미만 굴착기와 지게차 면허 취득을 지원해 구직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산직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 중 2일간 진행되며, 이론교육 6시간과 실습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으로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건설기계의 구조와 작동 원리 △관련 법규 및 안전수칙 △작업장 사고 예방 △굴착기·지게차 조종 실습 등으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모집인원은 총 18명으로 굴착기 과정 5명, 지게차 과정 13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장수군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 구직자 중 1종 보통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참여 희망자는 다음 달 6일까지 장수군로컬JOB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교육을 수료하기 위해서는 이론과 실습을 포함한 전체 교육과정에 100% 출석해야 한다.

전경애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김장페스티벌 사전예약 열기

10일만에 78톤 돌파 조기 매진 임박

배추와 고추 등 김장 재료 가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우수한 지역 농산물과 합리적인 가격을 앞세운 '제11회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전국 소비자들의 큰 호응 속에 사전예약 열기를 이어가고 있다.

임실군에 따르면 올해 김장 페스티벌 절임배추·양념세트는 사전예약 시작 10일만에 총주문량 78톤을 돌파했다. 절임배추 56톤과 양념 22톤이 주문된 것으로, 올해 확보 물량 134톤 대비 약58.2%에 해당한다.

예약 초기부터 주문이 빠르게 늘면서 김장 재료 구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행사는 내달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임실치즈테마파크일원에서 열린다. 현장에서 직접 김치를 버무려 가져가는 김장체험과 절임배추·양념세트를 택배로 받거나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현장수령하는 판매행사로 나눠 운영한다.

현장 김장체험은 선착순으로 사전예약을 받고 있으며, 예약이 조기 마감에 임박해지고 있다. 절임배추·양념세트 판매 사전예약은 11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실제 올해 판매 가격은 절임 배추(20kg)와 양념(10kg) 세트 품목 기준 택배비 포함 19만 5천원이다. (농)임실앤양념(주)에서 직접 수령하면 택배비를 제외한 18만 7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파크골프대회 성황리 개최

연애인·동호인 320여 명 참여 명품 파크골프장 유치 염원 모아

진안군은 29일 진안군 파크골프장에서 '2026년 진안군 파크골프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의 진안군 유치를 염원하고, 공모 선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유명 연예인들을 특별 초청하여 마련됐다.

진안군파크골프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연예인들을 포함한 진안군 동호인 320여 명이 참여해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을 향한 염원을 함께 나눴다. 특히 가수 홍경민, 소명, 원미연을 비롯해 개그맨 황기순, 오정태, 전 마라톤 국가대표 이봉주, 전 유도 국가대표 김재엽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인사들이 참여해 대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대회는 남녀 동호인 경기와 연예인 친선 경기 등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파크골프를 통해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한편,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진안군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기원했다.

진안군은 이번 공모사업의 유치를 통해 전국 규모 대회 개최 기반을 마련하고, 마이산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스포츠 관광 활성화로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지방세외수입 담당자 교육 실시

차세대 정보시스템 활용 교육 세입관리 효율성 높여

장수군은 지난 27일 군청 전산교육장에서 지방세외수입 부과·징수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지방세외수입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부과·징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용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스템 활용 능력과 실무 전문성을 함께 높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에 중점을 뒀다.

교육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운영지원단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세입관리 전반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세외수입 부과·징수 △체납처분 △과태료·과징금 관리 등으로, 담당자들이 교육 내용을 실제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석자들은 평소 업무를 수행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나누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며 실무 이해도를 높였다.

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별 업무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해 세외수입 부과부터 징수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공공용지 내 사유지 분할 측량비 전액 지원

군청 민원봉사과서 신청 접수

진안군이 연말까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공용지 내 사유지의 분할 측량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과거 새마을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마을안길, 농로, 도로, 하천 등에 편입되었으나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진안군은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말까지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에서 토지 현황과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토지는 군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측량을 의뢰하여 전액 군비로 측량을 진행하며, 측량이 완료되면 토지 대장 등 지적공부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진안=전길빈 기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완주 용진읍지사협 장애인 가을 문화 나들이

완주군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소병오, 송미경)가 최근 관내 장애인과 협의체 위원 등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익산 일원에서 '장애인 문화 나들이' 행사를 펼쳤다.

이번 나들이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평소 나들이 기회가 적은 장애인들에게 가을철 정취를 선물하고 정서적 교류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2017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어온 용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적인 장수 민관협력 특화사업으로 남다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장애인과 협의체 위원이 일대일로 짝을 이뤄 이동과 관람 내내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속에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현대식 식품 생산 시설을 둘러보는 익산 하림공장 미식 투어에 참여해 다양한 음식 문화를 체험한 뒤,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 행사장을 찾아 그윽한 국화 향기를 맡으며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농촌 일손 돕기

수확철 농가에 힘 보태 농업 현장 어려움 체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김민수)는 본격적인 고추 수확철을 맞아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와 지역 농가 지원을 위해 'KRC 지역상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농촌 인구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로 수확철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순창지사 직원들은 관내 고추 재배 농가를 방문해 고춧가루 생산에 필요한 고추 따기 작업에 힘을 보탰다.

직원들은 잘 익은 고추를 하나하나 정성껏 수확하며 농가의 바쁜 일손을 거들었으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농업인과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고추는 순창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순창고추장의 원료로도 활용되는 중요한 농산물인 만큼, 이번 활동은 지역 농산물 생산 현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업의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순창=박지헌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는 고추 수확철을 맞아 'KRC 지역상생'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



김제 광활면 두꺼비회관 설렁탕 150인분 기탁

김제시 광활면 행정복지센터는 29일 두꺼비회관(대표 박옥진)이 설렁탕 150인분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두꺼비회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을 이어갔다. 이번 기탁은 취약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의미를 더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탁받은 설렁탕에 직접 담근 깍두기와 과일을 함께 준비해 관내 독거노인 및 장애인 가정 등 취약계층 150세대에 전달했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고, 겨울철을 앞두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챙겼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식생활을 지원하는 동시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돌봄 활동을 실천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광영공익재단, 임실 청소년에 장학금 3천만원 전달

2026년도 장학증서 수여식 1인당 150만 원 지급

고향 후배 양성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는 (재)광영공익재단 허광욱 명예이사장의 뜻이 지역사회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있다.

(재)광영공익재단은 29일 임실군 봉황인재학당에서 한득수 임실군수와 장학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아동·청소년 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재단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 2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3천만 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하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심상우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꿈과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재단이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전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 성장기 아동에 밑반찬 나눔

익산시는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가 29일 드림스타트 아동 20가정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진행됐으며, 회원 80여 명이 성장기 아동의 영양 균형과 입맛을 고려해 멸치볶음과 장조림을 준비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익산지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와 교육에 힘쓰는 한편, 2022년부터 드림스타트 아동을 위한 밑반찬 지원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눔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명희 지회장은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며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반찬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나눔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선희 익산시 아동보육과장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호남향우회총연합회 여성회, 부안에 성금 기탁

부안군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여성회장이자 인천부안군민회장을 맡고 있는 이명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명이 지난 28일 부안을 방문해 뜻깊은 고향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단은 이른 아침 인천을 출발해 부안의 주요 명소와 문화유적지를 둘러보며 발전한 고향의 위상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향우들은 지역 발전을 응원하는 마음을 온전히 담아 부안군 고향사랑기부금 300만원을 기탁하며 고향을 향한 진솔하고 깊은 애정을 아낌없이 전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명순 회장은 "몸은 비록 타지에 있지만 늘 가슴 한켠에는 고향 부안에 대한 그리움과 자부심을 품고 살아간다"며 "이번 고향사랑기부금이 부안군의 눈부신 도약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장수 천천면지사협, 사랑의 염색 봉사 펼쳐

장수군은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독거노인과 저소득 취약계층 등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염색 봉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미용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염색 봉사를 제공하고,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등 이웃 간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협의체 위원들은 어르신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염색을 도와드리고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조규덕 민간위원장은 "위원들이 직접 어르신들을 찾아가 염색을 도와드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어 뜻깊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정읍 농소동 새마을부녀회 홀몸 어르신 60가구 식사 지원

정읍시 농소동 새마을부녀회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홀몸 어르신 60가구에 전달하고, 일부는 내장상동 공유냉장고에 기증했다.

지난 28일 농소동 행정복지센터 광장에서 진행된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에는 각 마을 부녀회장 20여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식재료를 준비하고 김치와 불고기 등 다양한 밑반찬을 정성껏 만들었다.

이번 나눔은 홀로 생활하며 식사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기 위해 마련됐다. 어르신 가정에 반찬을 배달하는 한편, 공유냉장고를 통해서도 이웃들과 음식을 나눴다.

현복현 부녀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손길과 정성으로 준비한 음식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꾸준히 살피며 이웃사랑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一事一言〉



탈피

곽보경

작가·前 국회정책연구위원

몇 해 전 아프리카 종단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였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술잔을 내려놓더니 거기서 뭘 보고 뭘 느끼고 왔느냐고 물었다. 나는 느낀 바는 없고 청년이 되어 돌아왔다고 답했다. 친구는 농담으로 들었는지 웃고 말았다. 그러고는 사진이나 보여 달라며 내 휴대전화를 끌어갔다. 화면을 넘기던 친구가 살이 많이 빠졌다고 했다. 나는 살만 빠진 게 아니라고 말하려다 그만두었다.

농담이 아니었다. 본 것은 사진에 남아 있고 느낀 것은 몇 해 지나면 흐려진다. 정작 오래 남는 건 길 위에서 조금씩 달라진 나였다. 아침마다 길을 묻고 값을 흥정했다. 어느 국경에서는 반나절을 줄서서 기다렸고, 말이 통하지 않아 손짓만으로 하루를 버틴 날도 많았다. 처음 몇 주는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속이 끓었다. 한 달쯤 지나자 그러려니 하게 됐고, 나중에는 그게 여행의 전부라는 걸 알았다.

출발할 때 배낭은 어깨가 휠 만큼 무거웠다. 대부분 혹시 몰라 넣은 것들이었다. 두꺼운 가이드북은 두 번째 나라에서 다른 여행자에게 넘겼고, 끝내 펴 보지 않은 소설책은 어느 게스트하우스 책장에 꽂아 두고 나왔다. 여벌로 챙긴 운동화는 숙소 마당을 쓸던 청년에게 주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신어 보더니 발이 꼭 맞는다며 마당을 한 바퀴 뛰었다. 종착지에 닿을 무렵 배낭은 절반으로 줄어 있었다. 이상하게도 짐이 줄수록 겁도 줄었다.

생각해 보면 마음도 그런 배낭을 메고 산다. 이미 안다고 믿는 것, 늘 해 오던 방식 같은 것들이다. 처음 보는 식당 앞에서 망설이다 결국 늘 가던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것도 그런 짐이다. 처음엔 나를 지켜 주는 줄 알고 챙기지만, 어느새 그 무게 때문에 아무 데도 못 가게 된다.

에티오피아에서 버스를 놓친 일이 있다. 표에 11시라고 적혀 있어 오전 늦게 느긋하게 터미널에 갔는데, 버스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매표소 직원이 벽시계의 11을 짚더니 손가락을 맞은편 5로 옮겼다. 그 나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시간을 센다. 표에 적힌 11시는 새벽 다섯 시였던 것이다. 나는 터미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웃었다. 그 뒤로는 안다고 생각한 것도 한 번 더 물었다.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일, 나는 그게 도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거창한 모험이 아니어도 된다. 해 본 적 없는 일에 손을 대고, 그걸 멈추지 않는 사람이 청년이다. 쉰이 넘어 처음 붓을 잡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물 남짓에 벌써 세상 다 안다는 얼굴을 한 사람도 있다. 60대 청년이 있고 20대 노인이 있는 셈이다.

탄자니아의 한 숙소에서 일흔을 바라보는 네덜란드인 부부를 만난 적이 있다. 두 사람은 자전거로 대륙을 내려가는 중이었다. 무릎이 성하냐고 묻자 남편이 웃으며 무릎보다 고집이 먼저 닳을 거라고 했다. 고집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린 건 처음이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짐을 실은 자전거를 끌고 먼저 길을 나섰다. 나보다 스무 살은 많은 사람들이었다.

여행 마지막 날, 대륙 남쪽 끝 바닷가에 섰다. 뭔가 벅찬 마음이 들 줄 알았는데, 바람을 맞으며 처음 떠오른 건 다음엔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었다. 그때는 그게 좀 싱겁다고 여겼다.

청년은 대개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한다. 동창 모임에 나가 보면 이야기는 삼십 년 전 운동장에서 시작해 거기서 끝나기 일쑤다. 누가 싸움을 잘했고 누가 공부를 잘했는지를 몇 번이고 되짚는다. 반가운 얘기지만, 자리에서 일어설 때면 어딘지 허전하다. 지난날을 돌아보는 게 잘못일 리 없다. 다만 과거가 대화의 전부가 되면 그 사람의 시간은 거기서 멈춘다. 도전에 바쁜 사람은 과거를 거론할 틈이 없다.

돌아온 지 몇 해, 배낭은 다시 무거워졌다. 서랍에는 어디에 쓰는지도 모를 충전기 줄이 엉켜 있고, 옷장에는 언젠가 입겠다며 걸어 둔 옷이 늘었다. 누가 새로 뭘 배워 보자고 하면 입에서는 "다음에"가 먼저 나왔다. 그 다음은 몇 해째 오지 않았다. 그러니 또 덜어 내야 한다. 끊임없는 의식의 탈피만이 청년으로 사는 길이다.

그 친구와는 지금도 가끔 술잔을 기울인다. 요즘은 그가 먼저 다음엔 어디 가느냐고 묻는다. 그날 친구에게 한 대답은 여전히 바뀔 생각이 없다. 여행이 내게 남긴 건 느낀 바가 아니라 내려놓는 법이었다. 그걸 잊지 않는 동안, 나는 아직 청년이다.

사 설

HD건설기계 군산 신공장 준공 환영한다

HD건설기계가 군산에 1,168억 원을 투자해 엔진·배터리 생산 신공장을 준공했다.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산이 미래 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특히 건설기계 중심의 기존 산업구조를 방산과 에너지 분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이번 신공장은 6만2,700㎡ 부지에 조성됐으며, 연간 발전용 엔진 1,250대와 방산용 엔진 120대, 배터리팩 최대 1,460MWh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첨단 자동화 설비까지 도입해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을 높였다. 단순한 생산시설 확충을 넘어 군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투자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무엇보다 주목할 부분은 미래 성장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른 발전설비 수요와 K-방산 수출 증가에 대응할 생산 기반이 군산에 들어섰다. 전동화 시대를 겨냥한 배터리팩 생산시설까지 갖추면서 군산은 방산·에너지·전동화 산업을 아우르는 복합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기회를 맞았다.

이번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공장 가동에 따른 신규 고용과 지역 협력업체의 부품 공급, 관련 산업의 집적화는 군산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양질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전북도와 군산시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번 준공을 계기로 관련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HD건설기계 역시 지역기업과의 협력 확대와 후속 투자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실제 공장 준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반가운 성과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생산과 지속적인 투자 확대다. HD건설기계 군산 신공장이 대한민국 방산·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군산과 전북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기를 기대한다.

▲ 오늘의 시

너의 하늘을 보아 / 박 노 해

네가 자꾸 쓰러지는 것은
네가 꼭 이룰 것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것은
네가 가야할 길이 있기 때문이야
네가 다시 울며 가는 것은
네가 꽃피워 낼 것이 있기 때문이야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는
너의 하늘을 보아
네가 하늘처럼 생각하는
너를 하늘처럼 바라보는
너무 힘들어 눈물이 흐를 때는
가만히 네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가 닿는
너의 하늘을 보아

시인 약력 : 1957년 전남 함평 출생. 선린상고를 졸업했다. 1983년 '시와 경제'에 '시다의 꿈'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등단했다. 1984년 시집 '노동의 새벽'을 펴내 밀리언 셀러가 됐다. 1991년 안기부에 체포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8년 DJ 정부 때 특별 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복권됐으나 국가보상금을 거부했다. 옥중 에세이 '사람만이 희망이다' 등 다수의 작품을 출간했다.

| 독자투고 |

"부대 회식 80인분 예약할게요"…그 전화, 사장님 통장을 노린다



"○○부대 행정보급관입니다. 장병 80명 회식 예약하려고요. 그런데 사장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큰 단체 예약에 들뜬 식당 주인에게 그는 공문과 명함을 보내며 말을 잇는다. 부대에 급히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 거래처에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회식비와 함께 정산해 주겠다는 것이다. 돈을 보내고 나면 부대도, 거래처도, 예약 손님도 모두 사라진다.

자영업자를 노린 '노쇼 사기'가 무섭게 번지고 있다. 올해 1~8월에만 4,497건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300억 원을 넘었다. 이미 지난해 한 해 피해액을 웃도는 규모로, 한 건당 평균 피해는 2,900만 원에 이른다. 범인들은 군부대뿐 아니라 소방서·교육청 등 공공기관과 대기업까지 사칭한다. 소방용품이나 고철, 도시락 대량 주문을 미끼로 삼고 위조 신분증과 발신번호 조작까지 동원한다. 해외 거점 조직이 600명 넘는 소상공인에게서 240억 원을 가로챈 사례도 드러났다.

'설마 공공기관이 거짓말을 하겠나' 하는 믿음과 큰 주문을 놓치기 싫은 절박함이 범인들의 무기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원칙은 분명하다. 공공기관은 식당이나 상점에 물품 대리구매를 부탁하지 않는다. 특정 업체로 돈을 먼저 보내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대리구매나 선입금 이야기가 나오면 그 즉시 거래를 멈춰야 한다. 상대가 알려준 번호가 아니라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를 직접 찾아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112에 신고하자. 경찰도 지역 상인들과 함께 예방에 힘쓰고 있지만, 마지막 방어선은 사장님의 의심이다.

큰 주문일수록 한 번 더 의심하자. 확인 전화 한 통이 가게를 지킨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경사 박재원

JBT 전북타임스 Jeon Buk Times
www.jeonbuktimes.co.kr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 (일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회장 신영배 | 발행·편집인 송민순 | 편집국장 장정철 |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지사 010-9645-4113 | 군산지국 010-8641-7942 | 무주지국 010-6411-0835 |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 남원지국 010-2285-3987 | 임실지국 010-8642-6502 |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 익산지국 010-9560-3075 | 진안지국 010-2433-1721 |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 김제지국 010-4572-6112 |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 정읍지국 010-2800-2934 |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자원순환부터 미래산업·청년 도전까지 한자리에서 김제의 내일을 만나다!









깊어가는 가을, 환경과 산업, 청년의 미래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이 마련된다.

김제시는 3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김제시 민문화체육공원과 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세 개의 행사가 동시에 열린다고 밝혔다.

버려진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미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며청년의 열정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이번 행사의 주인공은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제4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2026 김제청년축제다.

환경을 지키는 생활 속 실천부터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이 주도하는 새로운 문화까지. 세 행사는 각기 다른 주제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김제의 현재를 경험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전시와 체험, 공연과 참여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가족 단위 방문객부터 청년과 산업 관계자까지 함께 즐기며 김제의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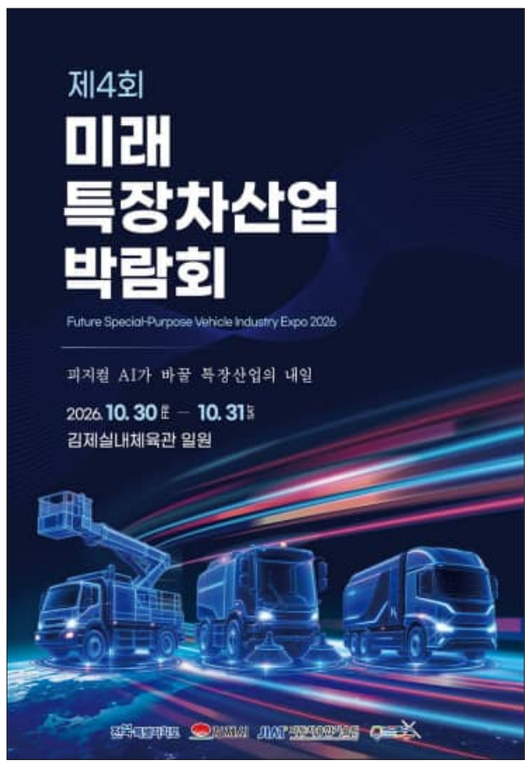
〈편집자 주〉

새로보미 축제·특장차산업 박람회·청년축제 30일 개막
환경·산업·청년 아우르는 체험·공연·상담회 풍성

체험전 등을 만날 수 있다. 새로보미존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분리배출 교육과 업사이클링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진행되며, 종이 우유팩 교환소와 폐의약품 수거 부스도 운영된다.

무대에서는 가족 단위 업사이클링 작품 만들기 대회와 청소년 댄스 대회, 환경 퀴즈대회, 환경 인형극 등이 펼쳐진다. 금속 폐자원을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 '알루의 정크아트 정원'도 눈길을 끈다. 버려진 물건이 창의적인 작품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자원의 새로운 가치와 예술적 가능성을 함께 느낄 수 있다.

축제는 운영 방식에서도 친환경을 실천한다. 종이 전단지와 일회용 현수막 대신 디지털 안내와 칠판 보드를 활용하고, 다회용기를 기본으로 사용해 쓰레기 발생을 줄인다. 텀블러를 가져오면 음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등 방문객이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에 동참하도록 했다. 축제장에서 배우고 실천한 작은 행동이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행사의 핵심이다.





■ 버려진 자원에 새 생명을…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

'다시 태어나는 자원, 다시 살아나는 지구!'를 주제로 열리는 제4회 김제 자원순환 새로보미 축제는 환경 보호를 어렵고 딱딱한 과제가 아닌 즐겁게 배우고 실천하는 일상 속 경험으로 풀어낸다.

올해 축제는 무대존, 자원순환존, 새로보미존, 노리존 등 4개 구역에서 65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환경에 판타지 요소를 접목해 참가자들이 환경을 지키는 'S급 자원순환사'로 성장하는 퀘스트형 이야기를 도입했다. 김제교육지원청과 한국환경공단, 전북지방환경청, 전주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여해 환경교육의 의미를 더한다.

자원순환존에서는 축제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리봇의 미션 브리핑룸'과 생활 습관을 살펴보는 'AI 자원순환사 성향 테스트', 김제시 자원처리 시설을 견학하는 '자원순환 투어' 등 체험형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소방차 물호스 체험으로 재난 대응 장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장차 페이퍼토이 조립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드론 조종 체험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전문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30일 개막식에서는 특장산업 발전 유공자 표창과 설계 경진대회 시상이 진행되며, 관련 기관·단체 간 업무협약을 통해 특장차와 피지컬 AI 융합기술의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기반을 다진다. 이어지는 정책 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전환과 자율주행 기술 활용 등 제조업의 미래 전략을 논의한다.

31일에는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특장차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리고, 수출상담회와 특장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도 마련된다. 시민에게는 새로운 기술을 경험하는 기회를, 기업에는 판로 확대와 투자유치 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넓힐 것으로 기대된다.

■ 피지컬 AI와 특장차의 만남… '제4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

김제의 미래 성장동력인 특장차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된다. 김제실내체육관 일원에서 열리는 제4회 미래 특장차산업 박람회는 '피지컬 AI가 바꿀 특장산업의 내일'을 주제로 산업의 기술 변화와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

전시장에는 소방차와 구급차, 고소작업차, 환경청소차, 캠핑카, 자율주행차 등 특장차 50여 대가 전시된다.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참여하는 홍보부스에서는 관련 기술과 제품, 기업지원 사업 등을 소개해 특장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대형 특장차 사각지대 체험을 통해 교통안전의 중요성을 배우고, 소방차 물호스 체험으로 재난 대응 장비를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다. 특장차 페이퍼토이 조립과 태양광 자동차 만들기, 드론 조종 체험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제청년축제는 청년의 열정(Passion)과 도전(Action)이 미래(Next)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담았다. 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참여형 축제로, 청년의 시선에서 바라본 김제의 매력을 나눈다.

이번 축제는 청년축제기획단이 프로그램 기획부터 운영까지 참여해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담아냈다. 첫날인 30일에는 '가을날 피크닉'을 주제로 잔디광장에서 버스킹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음악과 가을 풍경 속에서 잠시 일상을 벗어나 여유를 나누는 시간이다.

31일에는 '청춘 타임머신 운동회'가 열린다. 김제의 농업과 지역 특색을 담은 놀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함께 뛰고 웃으며 소통하고, 라이브 공연으로 축제의 흥겨움을 더한다. 경쟁보다는 협동과 교류에 초점을 맞춰 세대와 관계없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든다.

지역 창업가와 생산자가 참여하는 마켓에서는 먹거리와 상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원하는 청년정책을 선택하는 기회도 마련된다. 청년축제가 단순한 공연과 놀이를 넘어 지역의 창업과 소비를 연결하고, 청년정책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소통의 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세 행사는 각각 환경과 산업, 청년이라는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시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자원순환의 가치를 배우고 미래 기술을 경험하며 청년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과정은 김제가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을 보여준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이 지속가능한 내일로, 산업의 도전이 지역의 성장으로, 청년의 아이디어가 김제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지는 이틀. 올가을 김제에서 열리는 세 행사가 시민과 함께 미래를 그리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는 즐거움과 배움의 기회를, 지역에는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 실천을 확산하고 미래 특장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청년들이 자신의 열정과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넓혀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